



제5권 제1호

장애인복지 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목 차

1.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임 걸 · 박소영 · 문유정	
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의 인식	25
이진숙	
3.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상관연구	47
송기영	
4.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71
정해린	
5. 지체장애인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텔레프레즌스 로봇 시스템 제안	95
김창걸 · 강정배 · 진미영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No. 1, 1-24.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 결* · 박 소 영** · 문 유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영역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이 경제활동을 하기위한 취업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사회자본이 강하고 클수록 취업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의 규모가 강할수록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률은 6.8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자본의 밀도가 클수록 공식경로를 통한 장애여성의 취업률은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취업경로,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규모, 사회자본 밀도

* 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주저자)
** 전북대학교 해피상담센터 상담팀장(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교신저자)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장애여성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보건복지부(2011)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2,683,477명중 42.0%(1,096,800명)이 여성장애인으로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빈곤이 초래되는 원인으로 첫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 둘째, 남성에 비해 저임금과 불안정한 비정규직¹⁾ 취업형태로 노동을 하면서도 대부분 근로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있다(보건복지부, 2011; 정병오, 2010). 또한, 이형렬(2011)의 연구에서도 장애여성은 저임금 노동 근로자의 비율이 45.4%로 남성장애인(18.2%) 보다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근로자 중 장애여성의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빈곤화라는 문제로 귀착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여성들의 빈곤율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미화(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여성 빈곤율이 45%로 나타났다(임미화 외, 2010). 임미화(2010)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빈곤한 장애여성의 경우 그들 대부분이 이미 노동시장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병오(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개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소외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는 가족적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정병오, 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여성은 노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최대한의 사회·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하고, 취업방법의 선택에 있어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장애여성의 노동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논의하였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노동시장환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장애여성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충족되면 보다 나은 취업을 통해 빈곤의 완화와 안정적인 취업의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Granovetter, 1995).

1) 정병오(2010)에 의하면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남성 2,790(천원), 여성 1,783(천원)으로 여성이 639천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여성 중에서 89.5%가 비정규직 취업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여성의 취업에 사회자본이 어떠한 영향과 특성을 보이며, 사회자본이 어떻게 교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Portes, 1998; Lin, 2001)은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콜먼(Coleman, 1988)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취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요행 & 최국환(2010)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경우 구직 및 취업현황에 사회자본을 이용한 취업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사회자본이 장애여성의 취업에 있어 서구사회와 동일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그 관계성 또한 입증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취업에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 또한 거의 없다. 사회자본이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순여 & 장은주, 2008) 정도가 유사한 연구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빈곤한 장애여성이 사회자본의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에 효과적인 맞춤형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 1) 사회자본이 장애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2) 사회자본이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여성의 문제

1) 장애여성의 빈곤화

197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빈곤이 빠른 속도로 여성문제화 되어가는 것을 관찰한 피어스(Pearce, 1978)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피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 16세 이

4 장애인복지 연구

상 성인 빈민 세 명 중 두 명이 여성이며, 노인빈민의 70%이상이 여성이고, 빈곤가구의 절반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녀는 빈곤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성이고,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여성이 곧 빈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임 결, 2013 재인용).

조지(George, 2002)에 의하면 복지제도가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빈곤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다(이현미, 2005에서 재인용).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가구주와 여성장애인, 노령 여성노인의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사회의 신빈곤(new poverty)을 대표하는 집단에 속한다(박영란, 2003). 따라서 빈곤한 장애여성에게 있어 노동이란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취업을 통해 경제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취약성과 기회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등 총체적 삶의 모습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황령희, 2003). 이러한 상황에서 빈곤한 장애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취업시장에 끊임없이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장애여성의 취업경로

장애여성이 어떤 취업경로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시장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는 장애여성이 선택한 취업경로에 따라 임금수준과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김성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이 개인이 선호하는 취업경로에 따라 취업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고한다.

(1) 공식경로

공식경로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 외부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로서 여기에는 시험, 면접 등의 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나, 공적인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Bott, 1971). 골란(Golan, 1980)은 공식경로를 관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적 원조체계, 상호원조관계, 전문가 원조체계, 전문가 체계로 구분하였다. 공식경로가 더 중요한 취업방법이 되는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밀도가 큰 경우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지연이나 학연, 혈연처럼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에 있어 밀도가 크다. 또한 공식경로가 취업에 있어 더 중요한 취업방법이 된다는 것은 공식경로가 가져다주는 취업결과가 더 좋다는 것을 뜻한다(김용학, 2004). 한국노동시장에서 취업방법에 관한 기존연구는 노동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방법이지만 보다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부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더 중요하다(김성훈, 2003). 이병희(2003)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비해 임금이 낮으며,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른 격차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낸다.

(2) 비공식경로

비공식경로에 대한 개념은 “개인이 친척·친지·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노동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식적인 접촉의 경로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 채용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Concran, Datcher & Duncan, 1980). 이렇게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의 경우 장애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적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있다. 그라노베터(Grenovetter, 1984)는 100인 미만의 조직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보다는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료화된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에 의한 환경구조를 더욱더 강화하게 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고 하였다. 즉,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로를 통한 취업으로 근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여성이 취업을 하는데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박태경, 2010).

위의 취업경로를 근거로 장애여성이 어떠한 취업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형태를 갖출 수 있는가를 장애여성이 보유한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하여 부르디에(Bourdieu, 1986)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자원을 총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르디에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수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박세경 외, 2008:28). 와크안트(Waquant, 1992)는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를 연결망,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주요한 요소라고 하였으며, 연결망의 크기와 자원의 양이 사회자본의 분명한 요소로 보았으며, 반면 보르디에는 사용가능한 자원들이 특별한 사회적 위치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이는 사회관계에의 배태성(embeddedness)을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연결망 연구들에 의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세경 외, 2008:29). 이정규(2000)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의무감(obligation),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규범(norms)을 제시하였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신뢰, 규범, 관계 등)”으로 규정 되고 있지만, 사회자본의 내용은 대체로 신뢰(trust), 정보(informa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 취업요인으로서 사회자본

나금실(2011)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경우 사회적지원의 매개효과를 통한 경제적 도움은 취업에는 효과적인 인과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박태경(2010)의 연구에서도 인적자본요인을 통한 취업이 경제적 지원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애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각 부문에 취업하는 주된 경로가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장애여성의 취업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과 같은 개인적 기준과 사회적지지 등의 환경적 기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회자본이 낮은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을 위한 경쟁과 준비기간, 강도가 사회자본의 활용도를 더 높인다고 할 수 있다(박태경, 2010). 장애여성의 경우 사회자본을 통한 직장탐색은 장애여성 구직자가 직장탐색의 한계비용과 직장탐색의 한계이익이 같아지는 수준을 눈높이 임금(reservation wag) 수준으로 정하고 여러 직장가운데 그러한 눈높이 임금이상의 임금을 제안하는



직장을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쟁이 치열한 공식경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임금과 고용인 불안정하더라도 취업이 쉬운 경로를 선호한다고 하였다(임 결, 2013).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3)는 취업 및 취업활동에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감정의 강도, 개인적 친밀도, 호혜적 행위 등에 따라 사회자본을 약한연결과 강한연결로 나눈다. 취업자가 고용주를 직접 접촉하거나 시험, 면접 등의 공식 경로를 통하기보다는 아는 사람(personal contact) 즉, 약한관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의 수준에 따라 취업 및 취업경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자본을 이용한 취업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3)는 사회자본으로서의 관계를 통한 취업의 경우 사회적 취업결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관계망을 활용할 경우 취업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얻는 것이 더 쉽다. 둘째,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셋째, 고용주의 경우 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부분(예를들면, 인성, 역량, 친화력 등)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넷째, 조직규모가 작거나, 유연한 조직의 경우, 고객을 대하는 기술이 중요한 경우, 채용에 따른 비용이 부족한 경우이다(Marsden, 2001). 김용학(2004)에 의하면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에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높게 나타나고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높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단순 노동시장을 선호 경향이 높아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한유대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포돌니와 바론(Podolny & Baron, 1997)은 버트(Burt, 1992)의 구조적 공지의 개념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자원의 내용을 더하여 사회자본의 수준이 규모(size)와 밀도(density)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취업에 있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사회자본의 수준(규모, 밀도)을 활용한 취업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유리한 사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부분으로서의 진입이나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공식경로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수준(규모와 밀도)을 보유한 장애여성의

취업에 대한 연구이기에 더 적절하게 살펴볼 수 있다(Burt, 1992).

〈표 1〉 사회자본의 학자별 정의 및 개념 비교

학자	사회자본의 정의 및 개념적 특성
Bourdieu (1986)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계되어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들의 집합. 특정 상황에서는 경제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고귀함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됨.
Coleman (1990)	사회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며 구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진 여러 가지 실체들. 이는 모두 사회자본의 관점을 약간 포함, 그 구조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들을 촉진, 자본의 다른 형태들처럼 사회자본 역시 생산적이어서 특정 목적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줌.
Putnam (1995)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지지(네트워크), 규범(정보),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형태
Burt (1992)	친구, 동료 보다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정적, 인적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
Fukuyama (1997)	집단과 조직의 공동목적을 위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협력이 허용된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의 특정한 집합
Woolcock (1998)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관계의 정보, 신뢰, 규범들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이나 사회 단위의 관계 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실제적, 잠재적인 자원들의 합. 사회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자산들을 둘 다 포함.
Granovetter (1974; 1985; 1995)	사회구조나 제도적 환경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관계적 작용은 사회자본에 의해 결정. 그는 사회자본을 약한연결과 강한연결로 구분하여 구직경로가 결정된다고 함.

* 홍영란 외(2006)에서 재인용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조사대상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여성이며,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일 현재 전라남도 순천, 광양, 여수에 거주하며 취업중인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을 통해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경도에 해당하며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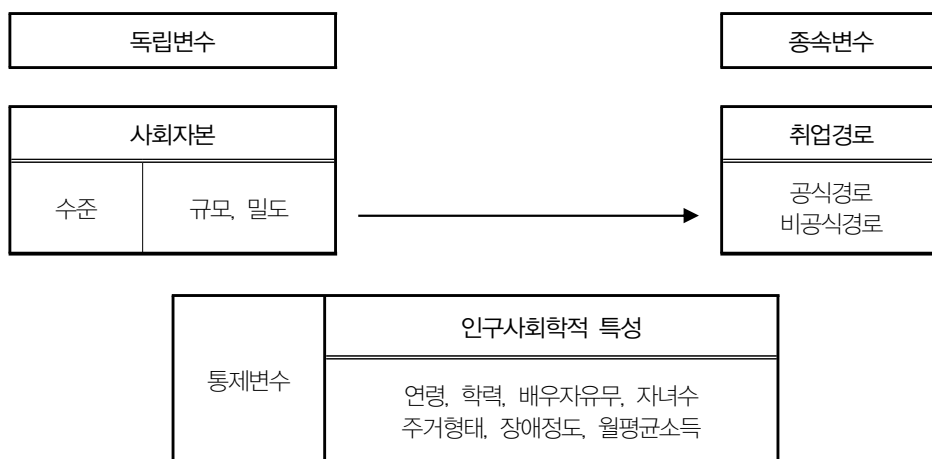
성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순천, 광양, 여수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자가 장애여성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청취하고자 함이었으며, 기관 및 업체의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장애인이 인식하는 문제들도 함께 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권에 국한하여 조사를 한 것은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였기에 조사는 한계를 가진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여 설문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해 2014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3주간 조사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189부를 회수 하였으며 응답에 문제가 있거나 자료가 누락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178케이스의 데이터가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위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을 위해 사회자본의 필요성 대해 분석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필요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1-1.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규모)은 취업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밀도)은 취업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사도구

1) 종속변수의 정의

보트(Bott, 1971)는 공식경로를 “개인이 외부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로서 공적인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던칸(Duncan, 1980)은 비공식경로를 “개인이 친척·친지·친구 등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노동력을 충원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경로를 비공식경로는 0, 공식경로는 1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 독립변수의 정의

(1) 규모(size)

Marsden(1987)에 의하면 규모(size)는 단순히 장애여성구직자의 사회적 망의 구성원수로 구직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수를 의미하며, 직장정보 통로의 수로 그 규모가 1. 강하다, 2. 약하다로 구분한다. 사회자본 수준인 규모에 대해 본 조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5였다.

(2) 밀도(density)

Laumann(1973)는 장애여성구직자와 사회적 망의 구성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없다, 1명, 3명, 5명, 7명, 9명으로 사회자본 수준의 밀도 크다, 작다로 구분한다. 밀도가 높은 경우 취업에 용이하고,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취업에 부정적이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2였다.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회자본 밀도(density)} = n / nC_2 \dots\dots\dots \text{공식(1)}$$

N = 응답자 포함 사회자본 내 구성원의 수

n = 구성원 간 관계 중 가까운 관계의 수

C = 조합(combination)을 말함

〈표 2〉 변수 및 설문항목 구성

구분	변수군	설문항목
종속변수	취업경로	공식경로, 비공식경로
독립변수	사회자본 수준	규모, 밀도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자녀수, 주거형태, 장애정도, 월평균소득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 여성이 보유한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사회자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과 취업경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장애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65명(36.7%), 20대가 63명(35.6%), 40대가 27명(15.3%), 50대가 18명(10.2%), 50대 이상이 4명(2.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젊은 장애여성 층에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40대 이상의 장애여성 중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자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학력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73명(41.0%), 대학교 졸업이 44명(24.7%), 전문대 졸업이 28명(15.7%),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무학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여성의 평균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이고 취업여성의 경우 81.4%가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의 고학력 여성이 취업에 대한 욕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 없다가 112명(62.9%), 배우자 있다가 66명(37.1%)로 조사되었다. 자녀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수 1-2명이 51명(54.8%), 없다가 34명(36.6%)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 정도의 경우에도 경증 장애가 112명(67.5%), 중증 장애가 54명(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인터뷰 응답에는 문제가 없는 조사대상자로 조사하였다.

월 평균소득을 살펴본 결과 100만원-149만원 미만이 69명(39.2%), 60만원-99만원미만이 54명(30.7%), 200만원-299만원미만이 29명(16.5%), 59만원미만, 300만원이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때 비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비 고	
연 령	20대	63	35.6	N=177
	30대	65	36.7	
	40대	27	15.3	
	50대	18	10.2	
	50대 이상	4	2.3	
학 령	무학	6	3.4	N=178
	초등졸	12	6.7	
	중졸	8	4.5	
	고졸	73	41.0	
	전문대	28	15.7	
	대학교	44	24.7	
	대학원 이상	7	3.9	
배우자 유무	있다	66	37.1	N=178
	없다	112	62.9	
자녀수	없다	34	36.6	N=93
	1-2명	51	54.8	
	3명 이상	8	8.6	
주거형태	혼자산다	25	14.0	N=178
	가족과 동거	139	78.1	
	친구, 지인과 동거	3	1.7	
	기숙사	9	5.1	
	그룹홈	1	0.6	
	기타	1	0.6	
장애정도	경증	112	67.5	N=166
	중증	54	32.5	
월 평균소득	59만원 미만	13	7.4	N=176
	60만원-99만원 미만	54	30.7	
	100만원-149만원 미만	69	39.2	
	200만원-299만원 미만	29	16.5	
	300만원이상	11	6.3	

2. 조사대상자의 장애 및 직업관련 특성

1) 장애관련 특성

여성의 장애관련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 4>와 같이 조사되었다. 장애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종질환이 77명(55.8%), 선천성이 28명(20.3%), 교통

사고가 10명(15.9%), 산업재해, 국가유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시점은 직장을 갖기 전 152명(91.0%), 직장 가진 후 15명(9.0%)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여성의 대부분이 장애시점과 직장 가진 시점에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을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가 151명(81.5%),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보유년수를 살펴보면 21년이상 107명(60.1%), 11년이상-20년미만이 25명(14.0%)로 조사되었다. 장애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장애 보유년수가 오래되었으며, 보유년수가 오래된 여성의 경우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 중 장애관련 특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비 고
장애원인	선천성	28	20.3	N=138
	교통사고	22	15.9	
	산업재해	10	7.2	
	국가유공	1	0.7	
	각종질환	77	55.8	
장애시점	직장 갖기 전	151	91.0	N=166
	직장 가진 후	15	9.0	
장애유형	지체장애	145	81.5	N=169
	뇌병변장애	2	1.1	
	시각장애	13	7.3	
	청각장애	7	3.9	
	지적장애	1	0.6	
	신장장애	1	0.6	
장애보유년수	5년미만	13	7.3	N=178
	5년이상-10년미만	10	5.6	
	11년이상-20년미만	25	14.0	
	21년이상	107	60.1	
	기타	23	12.9	

2) 취업 장애여성의 직업관련 특성

취업 장애여성의 직업관련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직업유형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이 76명(45.0%), 단순노무직이 39명(23.1%), 서비스/판매직이 22명(13.0%), 준전문가가 16명(9.5%), 전문가, 관리자, 기능직, 조립/조작 종사자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구분을 살펴본 결과 300이상 사업체는 137명



(77.0%), 보조금 지급업체, 장려금 지급업체, 300미만 사업체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장근무년수를 살펴본 결과 1년-2년미만이 55명(32.0%), 1년미만이 44명(25.6%), 10년이상이 24명(14.0%), 3년-4년미만 13명(7.6%), 2년-3년미만이 12명(7.0%) 순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장애여성의 경우 직장근무년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비 고
직업유형	관리자	4	2.4	N=169
	전문가	8	4.7	
	준전문가	16	9.5	
	사무직	76	45.0	
	서비스/판매직	22	13.0	
	기능직	2	1.2	
	조립/조작종사자	2	1.2	
	단순노무직	39	23.1	
사업체 구분	300인이상사업체	137	77.0	N=178
	보조금지급업체	18	10.1	
	장려금지급업체	17	9.6	
	300인미만사업체	6	3.4	
직장 근속년수	1년미만	44	25.6	N=172
	1년-2년미만	55	32.0	
	2년-3년미만	12	7.0	
	3년-4년미만	13	7.6	
	4년-5년미만	5	2.9	
	5년-6년미만	9	5.2	
	6년-7년미만	1	0.6	
	7년-8년미만	3	1.7	
	9년-10년미만	6	3.5	
	10년이상	24	14.0	

3. 장애여성의 직업만족도 및 이직의사

장애여성의 직업만족도 및 이직에 관한 의사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장애여성의 직업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83명(46.6%), 만족한다가 70명(39.3%), 매우만족한다가 17명(9.6%), 대체로 불만족하다가 8명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여성 중 48.9%가 만족하고, 46.6%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취업 장애여성의 경우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직의사가 없다는 146명(82.5%), 이직의사가 있다는 31명(17.5%)로 조사되었다. 이들 장애여성 중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임금이 낮아서,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 직장내 대인관계, 출퇴근 불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사가 있는 장애여성 중 저임금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 중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및 이직의사

구 분		빈도(N)	백분율(%)	비 고
직업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7	9.6	N=178
	만족한다	70	39.3	
	보통이다	83	46.6	
	대체로 불만족하다	8	4.5	
이직의사	예	31	17.5	N=177
	아니오	146	82.5	
이직 희망이유	일이 자신에게 맞지않아서	6	19.4	N=28
	임금이 낮아서	10	32.3	
	근로시간이나 휴일에 대한 불만	1	12.9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서	1	3.2	
	직장내 대인관계	4	12.9	
	출퇴근 불편	3	9.7	
	기타	3	9.7	

4. 장애여성의 사회자본과 취업경로 상관관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선행분석으로서 회귀모형의 독립성 검증과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통해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이 취업경로인 공식경로와 비공식경로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경로와 규모 합, 밀도 합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경로는 더미 처리되어 공식경로는 1, 비공식경로는 0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표준화회귀모형에서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검사를 수행한 결과 값이 모두 1에 가깝게 되고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상 분산팽창변수(VIF)의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표 7〉 장애여성의 사회자본과 취업경로 상관관계

구 분	취업경로	규모합	밀도합
취업경로	1		
규모합	.452**	1	
밀도합	.811***	.443**	1

*P<.05, **P<.01, ***P<.001

5.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과 취업경로 분석

1) 사회자본 수준(규모)과 취업경로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규모와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8〉, 〈표 9〉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규모와 취업경로에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규모가 취업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적합성을 살펴보면 $\chi^2 = 6.947$, 유의확률은 .008으로서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규모에 의해 취업경로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사회자본 수준의 규모에 따라 비공식경로와 공식경로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간의 차이를 보면 비공식경로는 56.7%, 공식경로는 60.8%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58.6%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 8〉 모형검정 및 분류의 예측도

구 분		예측값			정확도(%)
		비공식경로	공식경로	전체	
관찰값	비공식경로	51	39	56.7	58.6
	공식경로	40	48	60.8	

$$-2LL = 226.620$$

$$\chi^2(\text{절편모형-이론모형}) = 6.947(df = 1, p = .008)$$

$$\text{Nagelkerke } R^2 = .054$$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규모(Wald=5.640, p=.010)는 유의수준 .01에서 취업경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된 계수 B값이 1.927(Sig .018)로 사회자본 수준(규모)의 크기에 따라 취업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Exp(B)값이 6.867로 장애여성의 취업에 있어서는 사회자본 수준(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 공식경로를 이용한 취업이 6.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규모가 강할수록 즉,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강할수록 취업에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규모)과 취업경로

구 분	취업경로(비공식/공식경로)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상 수	-.212	.082	6.621	1	.010	.809
사회자본 규모	1.927	.811	5.640	1	.018	6.867

*P<.05, **P<.01, ***P<.001

2) 사회자본 수준(밀도)과 취업경로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밀도가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10〉, 〈표 11〉과 같다.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밀도가 취업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적합성을 살펴보면 $\chi^2 = 12.330$, 유의확률은 .027으로서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밀도에 의해 취업경로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밀도에 따라 비공식경로와 공식경로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간의 차이를 보면 비공식경로는 57.3%, 공식경로는 42.7%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58.0%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2LL = 184.051$ 로 나타났다.

〈표 10〉 모형검정 및 분류의 예측도

구 분		예 측 값			정확도(%)
		비공식경로	공식경로	전 체	
관찰값	비공식경로	76	26	57.3	58.0
	공식경로	52	24	42.7	

$-2LL = 184.051$

χ^2 (절편모형-이론모형) = 12.330(df = 1, p = .027)

Nagelkerke $R^2 = .230$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밀도(Wald=1.966, p=.028)는 유의수준 .05에서 취업경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된 계수 B값이 .766(Sig .026)로 사회자본 수준(규모)의 크기에 따라 취업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Exp(B)값이 1.151로 장애여성의 취업에 있어서는 사회자본 수준(밀도)가 1단위 증가할 때 공식경로를 이용한 취업이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밀도가 클수록 즉,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밀도가 클수록 강할수록 취업에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밀도)과 취업경로

구 분	취업경로(비공식/공식경로)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상 수	-.381	.173	4.840	1	.028	.683
사회자본 밀도	.766	.779	1.966	1	.026	1.151

*P<.05, **P<.01, ***P<.001

IV.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을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자본의 수준(규모, 밀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이론적 성과에 기초하여 장애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회자본의 수준(규모, 밀도)로 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구분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의 수준 가운데 규모에 따라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규모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장애여성의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비공식적 경로를 이용한 여성보다 6.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의 수준가운데 규모가 강할수록 취업이 용이하며,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더 원활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자본의 수준 가운데 밀도에 따라 장애여성의 취업경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수준 가운데 밀도가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장애여성의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비공식적 경로를 이용한 여성보다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의 수준가운데 밀도가 클수록 취업이 용이하며,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이 더 원활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장애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규모가 강하고 밀도가 클수록 장애여성의 취업은 수월하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여성의 취업에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수준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장애관련 기관 가입 및 정보제공을 통한 사회자본 연계망(social capital network)을 구축한다. 장애여성의 경우 다양한 정보획득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으며, 접근성이 낮아 취업을 하기위한 기회로부터 비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사회자본 연계망 확립을 통한 사회자본의 수준(규모)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용지원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맞춤형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워크넷(work.net)을 통해서도 장애여성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취업 장애여성의 경우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을 통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은 임금과 고용형태의 보장에 유의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 장애여성에 대한 후속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 그러므로 취업이후 6개월 고용형태가 유지 될때까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사회자본을 보다 세분화하여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규모와 밀도로만 국한하여 살펴보았으나 이는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대상을 장애여성으로 국한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사회자본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분화된 관계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성희(2010).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금실(201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만족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35-454.
- 박태경(2010). 장애인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직종에 따른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요행, 최국환(2010).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분석과 직업재활의 과제. **한국직업재활학회**, 20(1), 257-276.
- 이형렬(2011). 장애청소년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와 고용**, 21(1), 5-34.
- 임 결(2013). **저소득여성의 사회자본이 취업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연아(2010). **201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정순여, 장은주(2008). 사회적 자본이 공인회계사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회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
- 정병오(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20(2), 143-174.
- 황령희(2003).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48, 21-43.
- Bott, Elizabeth.(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s*. London: Tavistock.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Granovetter, M. S.(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in Marsden, Peter, and Nan Lin(eds.),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 Lin, Na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den, Peter V.(2001). Interpersonal ties, social capital, and employer staffing practice. pp.105-125 in Nan Lin, Karen Cook, and Ronald S. Burt(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22 장애인복지 연구

research Hawthorne, NY: Aldine of Gruyter

Pearce, D.(1976).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cial capital research on the impact of employment path

Lim, Gull
Park, So-Young
Moon, You-Jeong

【Abstract】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is employed to verify the path that has been done to clarify the relationship. Recent studies on social capital in various fields, but failure is in progress in the area being studied and it can be said that almost no research. In this study, women with disabilities are held to the social capital for economic activities affect the job search for any seen, social capital is very strong, leading to greater job influence. In other words, the stronger the scale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official route is 6.8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was higher the density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official route of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1.2 times increased. Based on these results, women with disabilities on its path of social capital policy implications of this work are presented.

☼ Key words : employment path, social capital size, social capital density

논문투고일 : 2014. 3. 18.

논문심사일 : 2014. 4. 16.

게재확정일 : 2014. 4. 25.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No. 1, 25-46.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의 인식

이 진 숙*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년제 대학에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과 일반대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 이해 정도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민감성은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과 일반대학생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유의미하게 교육과정에 다문화를 고려해야한다고 나타났다. 넷째, 교실운영에 있어서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다문화를 많이 고려해서 교실운영을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유의하게 교수 실제를 위해 기관구성원과 다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나타났다. 여섯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더 유의미하게 다문화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가 많이 협조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및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성을 알리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다문화, 다문화 교육, 다문화 인식

* 백석문화대학교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라는 급속한 국가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유아는 미래의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하는 세대이다. 세계화의 기본은 다문화의 이해와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유아에게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다문화 교육은 일반적으로 반편견 교육, 다민족 교육, 국제 이해교육, 세계 이해교육 등으로 불리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종교, 사회계층, 성, 장애에 기초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유색인, 빈곤층, 여성,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반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미래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채영란, 2008, 재인용). 다시 말해, 다문화 교육이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 이상을 다루는 교육으로 다른 인종, 성, 사회계층,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세계에서 유아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이다(Morrison, 1998).

이러한 다문화 교육은 유아기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유아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아기에 이미 인종, 민족, 사회, 계층, 문화, 성,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유아기에 습득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쉽게 변화되기 어려우며 유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보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선희, 1997). 다문화 교육이 유아기에 중요함은 발달단계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2~3세 유아들은 자기 외에 타인의 피부색, 성, 신체구조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타인의 문화화된 행동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나 타인이 자신에게 해롭게 할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4세가 되면 민족 집단과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또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하위문화와 타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많은 관심을 보인다. 5-6세가 되면 민족, 집단, 성 이 외에도 여러 나라의 생활방식과 하위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하기 시작한다(양옥승, 1997; Banks, 1994). 이런



유아교육과 발달 단계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은 유아기 시절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교육이며, 세계화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다양함을 수용할 줄 알게 되고,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유아들은 자신이 접해 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안의 한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노은영, 2007).

어린 시기의 유아들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패턴과 선택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들에게 구성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은 매우 어린 연령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Ornstein & Levin, 1990).

유아들이 하루 평균 최소 4~5시간에서 8~12시간 이상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는 가정과 보육시설이라는 두 환경 속에서 발달 과정의 대부분을 경험하게 된다(임미선, 2010).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유아교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기초로 외국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연구로서 다양한 민족이나 집단에 대한 교사의 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Larke, Wiseman & Bradly, 1990; Reed, 1993), 교사의 교육경험과 신념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급에서 유아들을 교육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강조되어 왔다(Harlin, 199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교육받고 성장한 교사의 선입견은 아직도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다문화 교육은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에만 필요한 것이라는 오해를 지속하고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교육 분야에서 미래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유아특수재활학생들이 보육현장에서 반편견 교육을 주도하고, 취약보육에서 중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 중요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특수재활전공 학생을 대상 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특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2012)의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학과 전공기준과 영유아보육시행규칙(2012)을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교과목은 없는 실정이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 또는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사회적 배경에 따른 보육관련자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다문화 인식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지연(2008)의 연구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도유무를 중심으로 한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육 신념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지도유무에 관련 없이 교사의 경력이 짧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옥선(200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념 및 실제조사에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의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가 다른 전공에 비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춘자(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즉 낮은 학년의 학생들보다 높은 학년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최동식(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에 관해 연구자는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학교에서 배우거나 현장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에 더불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발달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교수학습 기술이 풍부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유경(2011)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관련 과목 이수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다문화 관련 지식,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보육 및 장애를 전공 하고 있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보육에 관심이 없는 일반학생보다 좀 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게 가졌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운정(2011)의 연구는 보육교사 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예비보육교사가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과 김경숙(200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예비보육교사와 현직보육교사 모두 다문화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전반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임미



선(2010)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들은 학력 요인에 따른 차이 없이 다문화 가정에 허용적이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경력이 낮을수록 다문화 가정에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는 학력 또는 전공과 관련이 없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의 인식에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예비보육교사들은 학력에 따라서, 특히 전공에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신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반대로 학력이나 전공에 관련이 없는 다문화에 대한 신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로 나누어진다.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일반대학생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아특수교육재활전공은 장애아는 물론 다문화 아동 보육과 같은 취약보육에 대한 남다른 소양과 견해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생들과는 달리 좀 더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대학 이상의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보육교과과정에 다문화 인식에 관한 특성을 밝히고,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 필요성 여부 및 관련 내용을 특수교육에 보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일반학생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다문화 교육 인식에 대한 특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에게 보육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유아특수재활전공 교육과정에 다문화에 관련된 내용 또는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교육 이해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민감성 정도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교실 운영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5.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기관풍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6.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2년제 대학의 일반전공학생들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190부를 배부하여 170부를 회수하여 89.4%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에 답변이 부실한 경우와 정확히 응답하지 않은 경우인 9부는 제외하였다. 나머지 16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의 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여자	56	70.9
	남자	23	29.1
	합	79	100
일반 대학생	여자	62	75.6
	남자	20	24.4
	합	82	100
		161	

2. 연구도구

예비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의 인식을 알아보고, 일반대학생과 비교하기 위해 이윤정(2011)이 사용했던 ‘예비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 신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문화 이해(7문항), 다문화 민감성(3문항), 다문화 교육과정(10문항), 다문화 교실 운영(3문항), 다문화 기관풍토(5문항),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4문항)으로 총 6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윤정, 2011).

다문화 교육의 6개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문화 이해란 사회나 교육 상황에서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문화가 교사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다문화 민감성이란 다문화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떤 태도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과정은 다문화를 고려하여 유아교육과정(교육목표, 내용, 방법 평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다문화 교실운영은 다문화 교육과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하루일과, 환경구성, 상호작용 등)을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일컫는다. 다문화 기관풍토란 다문화 교수 실체를 위해 기관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인식 수준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이란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말한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중요치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중요하다=4점’, ‘매우중요하다

=5점'에 따라 직접 체크하는 자기보고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화 교육의 인식에 대한 척도의 하위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즉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607부터 .894에 걸쳐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신뢰도 계수는 .962로 매우 높은 신뢰도 수준이었다.

〈표 2〉 다문화 교육에 관한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다문화 이해	1,2,5,6,16,28,30	7	.847
다문화 민감성	3,9	2	.607
다문화 교육과정	7,11, 12,13,15,19,20,21,23,29	10	.894
다문화 교실운영	24, 25,31	3	.790
다문화 기관풍토	14,17,18,22,26	5	.827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	4,8,10,27	4	.749
전체		31	.962

3. 자료분석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수집된 연구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하위영역의 문항 성격에 따라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7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1. 보육교사는 보육기관에서 나타



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2. 보육교사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이 자신들과 질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5. 보육교사는 자신이 지닌 문화에 대한 태도가 유아관 및 교육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6. 보육교사는 유아들이 지닌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유아들의 행동이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6. 보육교사는 TV나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문화 관련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8. 지역사회, 교육 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은 유아들에게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30.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새로운 개념 학습을 돕기 위해 유아들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한 사례를 사용해야 한다. 등이었다.

다문화 이해에 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다문화 교육에 이해정도에 대한 분석

집단	N	M	SD	t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79	4.03	.620	2.345*
일반 대학생	82	3.82	.523	

*p<.05

다문화 교육에 이해 정도에 대한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일반대학생들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의미 있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45, p<.05).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일반학생들 보다 보육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 민감성에 대한 인식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2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3. 보육교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 또는 생각을 존중해야한다., 9. 보육교사는 특정 문화에 대해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옹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이었다.

다문화 민감성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다문화 민감성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N	M	SD	t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79	4.63	2.90	1.234
일반대학생	82	4.22	.685	

다문화 민감성에 관한 문항의 질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과 일반대학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34$).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은 모두 보육교사가 다문화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 교육과정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7.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11.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장단점을 포함한 그들의 특성을 문화와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12. 보육교사는 유아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3. 다양한 문화를 지닌 유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동학습이 필요하다., 15. 보육교사는 교육 자료에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분석해야 한다., 19. 보육교사는 유아들을 평가할 때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20. 보육교사는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유아들의 사전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21. 보육교사는 유아들이 자신의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3. 보육교사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활동(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 29. 보육교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등이었다.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다문화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분석

집단	N	M	SD	t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79	4.10	.650	2.014*
일반 대학생	82	3.91	.555	

*p<.05

분석 결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교육과정이 유의미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4, p<.05). 즉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보다 더 보육교사가 문화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아야 하고, 다문화적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문화 교실운영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 교실운영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3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24. 보육교사는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에 관해 질문할 때 특정문화에 대한 교사 자신의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반응해야 한다., 25. 보육교사는 유아들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을 상징하는 의상이나 음식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1. 보육교사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 등이다.

다문화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다문화 교실운영에 관한 인식에 대한 분석

집단	N	M	SD	t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79	4.02	.792	2.23*
일반대학생	82	3.77	.610	

*p<.05

다문화 교실운영에 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정도를 분석결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 보다 더 유의미하게 다문화

교실운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3$, $p<.05$). 유아특수 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가 편견을 갖지 않고, 다문화적 교실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다문화 기관풍토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 기관풍토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5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14. 보육교사는 교육보육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신념이 부모의 교육 철학 및 교육신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7. 교육 보육기관은 다문화에 관련한 교육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들을 보육교사에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18. 보육교사들 간에 교육철학이나 문화적 신념에 차이가 생겼을 때, 그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22. 교육, 보육기관(원장 및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유아들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추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26. 보육교사는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등이다

다문화 기관 풍토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다문화 기관 풍토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N	M	SD	t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79	4.00	.687	2.236*
일반대학생	82	3.78	.584	

* $p<.05$

분석 결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 보다 더 유의미하게 다문화 기관 풍토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36$, $p<.05$).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보육교사가 다문화에 대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부모나 교육기관을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해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4. 다문화가정 유아 및 부모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 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8. 지역사회, 교육 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유아들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0. 보육교사는 지역사회에서 유아들과 교육보육기관의 직원(원장,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7. 교육보육기관은 보육교사들에게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경험(연수나 워크샵 등)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분석

집단	N	M	SD	t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	79	4.06	.680	2.584*
일반대학생	82	3.78	.692	

*p<.05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 보다 더 유의미하게 지역 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84, p<.05).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가 다문화가정 유아 및 부모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 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 교육 이해 정도, 다문화 민감성 정도, 다문화 교육과정, 다문화 교실 운영, 다문화 기관풍토 및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보육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들이 보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문화 현상이 질적으로 보육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육교사 자신의 문화에 대한 태도가 유아관 및 교육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유아들의 문화에 대한 보육교사의 생각이 유아들의 행동이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보육교사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문화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교육 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은 유아들에게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유아들의 개념 학습을 돕기 위해 문화적으로 친숙한 사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공에 따라서 다문화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고 한 송지연(2008), 유선옥(2008), 그리고 이춘자(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과 달리 보육 및 장애에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유아 보육에 대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의 교육관이나 문화관이 유아의 개념형성 및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결과, 일반대학생들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



생들과 일반대학생들 모두 보육교사는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 또는 생각을 존중해야 하며 특정 문화를 비하하거나 옹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일반인들도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 만큼 다문화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윤정(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은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학력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민감성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 언어, 행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학과목의 이수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의 변화를 피부로 접하고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에는 전공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전공에 따라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서 보육교사들이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는 유아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를 지닌 유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협동학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들이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어야 하며, 유아들을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해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는 다양한 문화를 고려해야 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해 보육교사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이 교육과정인 교육 자료 선정, 교육내용, 활동지도, 평가에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민족이나 인종에 자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에 최유경(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보육관련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특히 교사에게 중요한 내용이고 교사가 직접 실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식이 부족하면 실천

이 어렵다. 선행연구(구민정, 황순영; 2012)에서도 다문화 교육의 최우선 방안은 교사의 그릇된 편견, 고정 관념 탈피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인식이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에 반영된다면 바람직한 교육실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넷째, 다문화적인 교육운영에 대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인식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보다 교실 운영에 다문화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교육운영에서 보육교사는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에게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식이나 개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운영이나 교실 환경에서도 다문화적인 변화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수연(201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다문화 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관계자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다섯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 기관풍토에 대한 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인식은 일반대학생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들이 교육보육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신념이 부모의 교육철학 및 교육신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기관이 다문화에 관련된 교육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들을 보육교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들 간에 교육철학이나 문화적 신념에 차이가 생겼을 때 그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교육, 보육기관들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유아들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들이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육교사의 다문화 이해, 교육지도 활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및 모든 교육기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문화적인 삶을 인식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대학생들과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다문화 가정 유아 및 부모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이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 교육보육기관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유아들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보육교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아들과 교육기관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은 교육보육기관이 보육교사들에게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은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문화에 민감하면서도 다문화 교육을 위해 협조하거나 참여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노명옥, 2009), 그 다음 교육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인식 및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함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교육에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아특수재활전공 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과 다문화 민감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교육 이해정도, 다문화 교육과정, 다문화 교실운영, 다문화 기관풍토, 지역사회기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특성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보육과 취약보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육과정 및 유아특수재활전공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한 내용의 포함과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초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일반대학생과 달리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으며,

미래 보육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에 적극성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대상의 부족, 연구대상 표집의 문제, 연구방법의 한계 등 제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유아특수재활전공학생들의 다문화 특성을 좀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도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연구 결과들로 유아특수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유아특수재활전공의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목의 개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민정, 황순영(2012).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교육혁신연구**, 22(1), 89-107.
- 구수연(2010).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특성. **열린유아교육 연구**, 6(15), 119-146.
- 김현주, 김정숙(2008). 예비보육교사와 현직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 **아동교육**, 17(4), 117-128.
- 노은영(2007).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교육실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명옥(2009). **보육교사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서울: 보건복지부.
- 송지연(2008).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육 신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1997). 유아교육과정연구의 재개념화 III: 다문화중의의 적용. **교육연구**, 5, 49-66.
- 유선옥(2008). **다문화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교사의 신념 및 실제조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2011). **예비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과 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자(2008).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분석. **한국보육학회지**, 8(3), 19-47.
- 임미선(2010). **보육교사의 다문화 가정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1997). **다문화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실태조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란(2008).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적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3), 165-190.
- 최동식(2012). **다문화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경(201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ks, J.A.(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 and Bacon.

- Harlin, R. P.(1999). Autobiographies and critical incidents: Lessons in culture divers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0(3), 259-269.
- Larke, J. Patricia, Wiseman, Donna, & Bradly, Charmaine.(1990). The mainority mentorship project: changing attitudes of per-service teachers for diverse classroom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12(3), 23-30.
- Morrison, G. S.(1998).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6th edition, Mermill. Prentice Hall. Anti-Bias approach to Young nelson Canada.
- Ornstein & Levin, D. U.(1990). *Multicultural education: Trends and Issue*. In Jesen, m.A.na Chevalier.(EI). Issues: and Advocar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Ramsy, P. G.(1987). *Teaching and learning in a diverse worl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Reed, F. Daisy(1993).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reservice student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15(3), 27-34.



A Study on Perception of Students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Lee, Jin-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comprehension on multicultural. Second, there weren't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sensibility on multicultural.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multicultural curriculum.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multicultural-classroom-management.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ix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ooper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Key words :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multicultural, multicultural education, perception on multicultural

논문투고일 : 2014. 3. 31.

논문심사일 : 2014. 4. 20.

게재확정일 : 2014. 4. 25.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No. 1, 47-70.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상관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송 기 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두 집단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2011년 실시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으로 노령화된 장애인 166명, 노인성 장애인 213명 총 379명이다. 장애노인의 특성으로 장애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 및 기능적 특성, 우울감,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주관적 신체상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감이 더 낮았다. 또한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간 상관관계는 두 집단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노인의 두 집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의 필요성과 장애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장애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이 고려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장애노인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노인, 노령화된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 우울감, 삶의 만족도

*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조교수

I. 서론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 4,701만명의 7.2%를 넘어서서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의 장애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한편 2010년 기준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545만 명(인구의 11.0%)으로 2010년 고령 인구 규모를 100으로 보면, 1980년 26.7 수준인 146만 명으로 지난 30년간 고령인구가 4백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2040년의 고령인구는 2010년의 302.6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2040년까지 1,100만 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통계청, 2012).

전체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같이 장애인구의 노령화 현상 또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장애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9.6%에서 2005년 45.9%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도 약 34%로 나타나고 있다(양희택·신원우, 2011). 한편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에 대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2005년도에 32.5%, 2008년도에 36.1%, 2011년에는 3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성희, 2013). 이처럼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전체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맥을 같이 하며, 장애인들의 수명이 과거와 달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김성희 외, 2011).

장애노인의 경우 노화와 장애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비장애 노인보다 신체기능상의 저하나 상실이 가중되고, 이러한 문제는 장애노인으로 하여금 역할상실을 가중시키고 의존성을 높인다(김고은·이종립, 2013). 이러한 장애노인의 문제는 장애노인 개인은 물론 그 영향력은 가족과 전체사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고 가야할 과제인 것이다(이준우, 2005).

그러나 장애노인 문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모두에서 그동안 주요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관련 교재는 장애노인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학술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애노인은 장애인 문제와 노인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미옥, 2003).



장애노인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이유는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때문이고, 둘째 장애노인의 영역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공유 영역이지만 장애노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노인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의 필요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윤경아 외, 2000).

장애노인은 장애인문제와 노인문제를 모두 갖는 취약계층으로 더 큰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장애노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데 사회적 무관심과 이로 인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노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먼저 장애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장애노인이란 ‘장애인’이면서 ‘노인’인 집단으로 장애인문제와 노인문제를 복합된 형태로 갖게 되는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다(김성희, 2013). 이처럼 장애노인은 장애인과 노인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노령화된 장애인은 노인이 되기 전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노인성 장애인은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노령화된 장애는 장애인의 노화를 의미하며 장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되는 경우이고, 노인성 장애는 노화로 인한 장애를 의미하여 노인이 되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이고,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장애인이 되었다(김성희 외, 2011). 그런데,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두 장애노인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였고, 대부분 노인성 장애인에 집중되었다(송미영, 2011; 이중섭, 2010; 김미옥, 2003).

노화와 장애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연속적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영역과 노인복지 영역의 장애노인은 엄격히 구분될 수 없는 연속체로 생각될 필요가 있다(김성희 외, 2011). 이처럼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은 모두 장애노인으로서 장애를 가진 노인이라는 공통점과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공유영역을 가지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장애를 언제 입게 되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노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두 집단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신체기능적 특성,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애인노인의 개념 및 특성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장애인노인은 장애를 가진 노인으로 개념정의 할 수 있다. 김형수·김용섭(2009)은 장애인노인을 인간의 발달 주기 중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쇠퇴해 가는 단계에 속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장애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문적으로 합의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에 따른 장애인” 등 장애인노인과 관련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두 장애인 집단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에 대한 개념정의와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한 학문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영미, 2013).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장애인노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노인은 장애발생 시기에 따라 크게 “노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과 “노인성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노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노인이 되기 전 어린 시절 또는 젊은 나이에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노인성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은 노인성 치매나 관절염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노년기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Verbrugge and Yang, 2002; Sheets, 2005).

한편 양희택·신원우(2011)에 의하면 장애발생시기와 원인 및 유형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고령화된 장애는 노인이 되기 전 선천성 장애 혹은 중도장애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노화에 따른 장애는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혜경(2010)은 노령화된 장애인(장애를 가진 나이 많은 사람)과 노령으로 인한

장애인(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 지었다. 노령화된 장애인은 노인이 되기 전 중도 장애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노인성 장애인은 노화와 함께 장애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장애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노령화된 장애인의 특성은 가족과의 연락두절이나 독신 등의 이유로 장기적인 독거생활을 유지해온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생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의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들 대부분이 시설생활이나 패쇄적인 생활로 인해 생애주기에 다른 적절한 사회경험이 부족하지만, 장애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하기 보다는 노년기 이전의 삶을 잘 유지하며 장애수용과 적응력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이영미, 2013).

둘째, 노인성 장애인은 노후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심리적 쇠퇴와 변화, 사회적, 가족적 지위의 추락 등의 노인문제와 동시에 장애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 장애 출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노인성 장애에 해당한다(최은희, 2003).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장애노인은 크게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노인이 되기 전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한 노인성 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인 및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장애노인의 구분

구분	노령화된 장애 (aging with disability)	노인성 장애 (disability with aging)
장애 발생 시기	노인이 되기 전 선천성 장애 혹은 중도 장애로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노년에 이른 경우로서 장애인의 노화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노화로 인한 장애
원인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등 선천적 장애와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척수손상 등 지체장애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후천적 장애 •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로 인한 신체의 기능적 제한을 일찍 경험 • 노화가 더 빠르거나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차적 장애(secondary disability)를 경험 • 이러한 신체적 제약과 건강 악화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나 우울로 이르지며 사회적 관계도 약화되면서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 주로 장애인복지의 주요 관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절염, 고혈압, 당뇨, 중풍, 뇌혈관질환, 치매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과 노년기에 발생한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 60세 이후에 장애출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짐 • 대부분의 시각, 청각, 신체적 장애증상이 노년기에 나타나며, 연령이 늘어날수록 증가함 • 주로 노인복지의 주요 관심 영역

2. 장애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개념

우울의 사전적 의미는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른데, 우선 우울이란 부정적 감정, 절망감, 슬픔 상태(Beck, 1987; Atchely, 1991; Ross, 2000)라고 했다. 국내외 학자들마다 우울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슬프고 절망적인 기분 또는 감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요한·김동배, 2013).

한편 생활만족도는 물질적,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 또는 주관적으로 갖는 느낌으로서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상태를 말한다(김미옥, 2003).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생활만족도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그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객관적인 생활만족도만을 중시하는 개념에서 주관적 안녕감도 함께 측정하는 생활만족도의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 생활만족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생활만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구성을 객관적 지표로 구성할 것인지 혹은 주관적 지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구성뿐만 아니라 생활만족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범주의 설정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생활만족보다도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이중섭, 2010).

노인의 우울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와 노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노인이 겪는 우울보다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장애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장애노인 문제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모두에서 그동안 주요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장애노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타 연구주제들에 비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들 중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를 각각 다룬 연구들은 있었으나, 이들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김성희 외(2011)는 65세 이상 장애노인을 고령 장애와 노인성 장애로 나누어 장애기간과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였다. 양희택 · 신원우(2011)는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와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두 집단의 신체 및 기능적, 심리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이중섭(2010)은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변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표 2〉 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결과
권오균(2008)	65세 이상 장애인	성별, 월평균소득, 신체적 건강, 사회적지지, 우울감이 삶의 질에 영향
김미령(2004)	60세 이상 여성장애인	가족과의 동거, 인지건강, 교육, 직업 및 종교활동 등이 삶의 질에 영향
Brajkovic et al.(2009)	뇌졸중 노인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생활공간
Berg et al.(2006)	80세 이상 노인	주관적인 건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Berg et al.(2006)	65세-89세 노인	주관적인 건강은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
Monika(2003)	58-87세 노인	삶의 목적, 주관적 건강, 연령은 주관적인 복지에 영향
Chen(2001)	60세 이상 노인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감소
Chen et al.(2008)	80세 이상 노인	주관적 건강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Inal et al.(2007)	65세 이상 노인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 생활만족도를 향상
Li(2005)	80세 이상 노인	주관적 건강이 생활만족도의 강력한 예측요인
Smith et al.(2002)	70세 이상 노인	주관적인 건강이 객관적인 건강보다도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측요인
Hopmna-Rock et al.(1997)	55-74세 관절염 노인	결혼상태, 질병정도, 신체 · 심리적 장애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출처 : 이중섭(2010), 필자 재구성

김미옥(2003)은 이차자료분석을 활용하여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장애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호특성, 건강관련 특성, 생활환경 특성을 조사하였다. 생활만족도 결과 뇌병변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김형수·김용섭(2009)은 장애노인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삶의 질에 있어서 장애 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애노인, 기초생활 비수급 장애노인, 경제수준이 좋은 장애노인, 청각장애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혜경(2010)은 ‘노령화연구패널(2006년)’을 통하여 장애노인의 원인에 따라 노령화된 장애노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지어 기간에 따른 장애노인의 우울감의 정도를 살펴보려 했으나, 이차자료 사용으로 인해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장애노인과 비장애노인으로만 구분하여 우울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노인의 우울감(CES-D 축약형 10개 문항, 척도의 범위는 0~30점)은 10.28점, 비장애노인의 우울감은 8.13점으로 장애노인의 우울감이 비장애노인의 우울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한다면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애노인의 구분 여부(노인성 장애와 노인성 장애로 구분)이고, 둘째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두 변인의 관계를 연구하였는지로 나눌 수 있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정리한 것은 있지만, 장애노인을 구분하여 이 둘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9월,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사용하였다.



KReIS 4차년도 조사는 1차년도에 원표본으로 구축된 5,110가구와 1차년도 조사 이후 분가한 111 가구의 총 5,221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타계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체계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장기적으로(longitudinal survey)를 추적하여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 노후생활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권혁장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패널 응답자 중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379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장애진단 시점의 나이에 따라 65세 전·후로 나누어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집단을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자의 성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교육수준, 배우자 존재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 중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로 구분하였고,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나누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으로 구분하였고,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2) 신체 및 기능적 특성

노인 및 장애인의 신체 및 기능적 특성으로 일상생활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주관적 신체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일상생활활동(ADL) 척도는 Katz(1963)이 개발한 지표를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K-ADL이다. 여기에는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척도는 일상생활활동 보다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1969년 Lawton과 Brody가 개발한 I-ADL을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된 K-IADL을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몸단장하기, 집안 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사기(쇼핑하기), 금전 관리, 전화 사용, 약 챙겨먹기의 10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영역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음(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2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음(3점)’으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합산점수를 활용하였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좋다’를 5점으로 리커트 척도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독립여부는 가지고 있으면 1, 가지고 있지 않으면 0으로 부호화 하였다.

3) 우울감

본 연구의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에서 우울에 대한 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Centre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조맹제 등(1993)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CES-D를 사용하였다. 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질문한 것으로 총 20문항에 해당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0점(극히 드물다)부터 3점(대부분 그랬다)을 주고, 긍정적인 문항은 이를 역으로 점수를 주어 총 60점 만점에 16점 이상의 경우는 우울상태로 판정한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장애인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삶의 만족도는 주거상태나 주거환경, 경제적 상태, 이웃·가족·친구·배우자·형제자매와의의 관계, 현재하고 있는 일, 건강상태, 여가활동, 생활 전반 등 총 12개의 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리커트척도화 하였다.



〈표 3〉 변수의 속성

변수	속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여성=0, 남성=1
	교육수준	무학=0, 초졸=1, 중졸=2, 고졸=3, 전문대졸=4, 대졸=5, 대학원=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장애유형	지체장애~장루·요루장애
	장애등급	1등급~6등급
	경제적 독립	비독립=0, 독립=1
신체기능적 특성	일상생활활동(ADL)	‘혼자서 할 수 있음(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2점)’,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음(3점)’
	도구적 일상생활(IALD)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매우 좋지않다(1) ~ 매우 좋다(5)
우울감		극히 드물다(0) ~ 대부분 그랬다(3)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도에 실시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응답자 중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 379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이들을 다시 65세 이전에 장애진단을 받은 노령화된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진단을 받은 노령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1.0 Win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우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장애인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 <표 5>와 같다.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은 각각 166명(43.8%)과 213명(56.2%)로 구분되어 노인성 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남녀 성별 비율을 보면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남자가 59.6%, 여자가 40.4%를 보인 반면 노인성 장애인은 38.5%와 61.5%로 나타나 성비가 역전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노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모두 지체장애가 각각 57.8%, 5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성 장애인은 시각장애(10.8%), 뇌병변장애(8.4%), 청각장애(7.8%)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노인성 장애인은 청각장애(14.0%), 뇌병변장애(10.8%), 시각장애(8.0%)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등급의 경우 노령화된 장애인은 4급(27.5%), 2,3,5급(16.7%), 6급(10.7%), 1급(9.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노인성 장애인은 3급(24.6%), 4급(23.5%), 5급(19.7%), 2급(11.7%), 6급(11.2%), 1급(4.2%) 등의 순으로 비율을 보여 등급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학력분포는 노령화된 장애인은 무학(15.6%), 초졸(40.9%), 중졸(19.2%), 고졸(19.2%), 전문대졸 이상(4.8%)의 비율을 보였고,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 무학(30.5%), 초졸(44.1%), 중졸(11.7%), 고졸(9.8%), 전문대졸 이상(3.7%)로 나타나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배우자 존재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노령화된 장애인은 74.6%, 노인성 장애인은 53.0%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독립여부에서는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이 각각 26.5%, 16.4%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배우자 존재유무나 경제적 독립 상황을 본다면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변인(1)

변수	항목	전체 (N=379)	노령화된 장애인 (N=166)	노인성 장애인 (N=213)	χ^2
성별	남자	181	99	82	16.712* df=1
	여자	198	67	131	
장애유형 ¹⁾	지체장애	216	96	120	1.811** df=1
	뇌병변장애	37	14	23	
	시각장애	35	18	17	
	청각장애	43	13	30	
	언어장애	6	2	4	
	지적장애	1	1	0	
	정신장애	9	4	5	
	신장장애	10	4	6	
	심장장애	10	5	5	
	호흡기장애	7	5	2	
	장루·요루장애	3	2	1	
기타	2	2	0		

*p<.05, **p<.01

〈표 5〉 인구사회학적 변인(2)

변수	항목	전체 (N=379)	노령화된 장애인 (N=166)	노인성 장애인 (N=213)	χ^2
장애등급 ²⁾	1급	22	14	8	9.973* df=6
	2급	47	25	22	
	3급	71	25	46	
	4급	85	41	44	
	5급	62	25	37	
	6급	37	16	21	
교육수준	무학	91	26	65	18.937* df=6
	초등학교	162	68	94	
	중학교	57	32	25	
	고등학교	53	32	21	
	전문대학	4	2	2	
	대학교	9	5	4	
배우자 존재여부	배우자 있음	237	124	113	18.659** df=1
	배우자 없음	142	42	100	
경제적 독립	독립	79	44	35	5.738*
	미독립	300	122	178	

*p<.05, **p<.01

1) 총 인원은 무응답에 따라 다름
2) 총 인원은 무응답에 따라 다름

2. 신체 및 기능적 특성 비교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신체 및 기능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일상생활활동(ADL)의 평균값은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1.24,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 1.27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IADL의 평균값도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1.42,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 1.46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화된 장애인 집단이 노인성 장애인 집단에 비해 신체 및 기능적 장애 수준이 더 높다는 양희택·신원우(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한편,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에 대한 평균값은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2.88, 노화에 따른 장애인은 2.6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양 집단 간 주관적 신체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Campbell and Kemp, 1997; 김미옥, 2003)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신체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희택·신원우(2011)는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다른 질환이나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이차적 장애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김성희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발생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건강상태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사회참여정도는 더 높았다. 이는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신체적 기능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응이론’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즉 이경식(2001)은 ‘Roy 적응모형’에서 인간은 변화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서 환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장애기간이 더 길므로 장애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적응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표 6〉 신체 및 기능적 특성 비교

변수(항목)	노령화된 장애인(M(SD))	노인성 장애인(M(SD))	t
일상생활활동(ADL)	1.24(.50)	1.27(.90)	-.319*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1.42(.60)	1.46(.98)	-.486*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2.88(.97)	2.65(.96)	2.273**

*p<.05, **p<.01

3. 심리적 특성 비교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우울감을 비교한 결과,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총점기준 평균 34.04이고,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 38.03으로 나타나 노인성 장애인의 우울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노령화된 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장애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기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와 연관해서, 우울감이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조운득·임혁, 2010; 권오균, 2008)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노령화된 장애인이 우울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우울감이 높다는 선행연구(Kemp et al., 1997; 김형수·김용섭, 2009; 양희택·신원우, 2011)와는 배치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우울감이 낮다는 것은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노령화된 장애인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장애 적응의 단계이론에 의하면 장애에 대한 적응은 장애발생 후 초기 충격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데, 장애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에 이르게 될 때 적응하게 된다(조성재, 2007).

〈표 7〉 장애노인의 우울감

변수(항목)	노령화된 장애인M(SD)	노인성 장애인M(SD)	t
우울감	34.04(19.97)	38.03(12.21)	-2.397*

*p<.05

4. 삶의 만족도 특성 비교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령화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총점 기준 33.09이고, 노인성 장애인은 30.8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장애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장애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김형수·김용섭(2009)의 연구에서 장애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0년 미만의 경우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영미 (2013)의 연구에 의하면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삶의 만족도 및 장애 수용도가 높은데, 이는 장애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년기 이전의 삶을 잘 유지하며 장애 수용과 적응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Williams, 2000; Thompson, 2004; 김성희, 2000)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양희택·신원우, 2011; 이영미, 2013)에서는 노인성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노령화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우울감이 더 낮다는 분석결과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상관관계는 다음 절에서 보기로 한다.

〈표 8〉 삶의 만족도 특성

변수(항목)	노령화된 장애인(M(SD))	노인성 장애인(M(SD))	t
삶의 만족도	33.09(8.07)	30.87(7.22)	2.816*

*p<.05

5.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

앞서 살펴본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수치는 집단 간 상반되게 나왔지만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선행연구(김형수·김용섭, 2009)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울감이 낮은 집단이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분석한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모두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γ)에 근거하면 노령화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은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노령화된 장애인보다 노인성 장애인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성 장애인의 경



우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성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감을 낮추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장애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우울감 (상관계수 γ)	
	노령화된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
삶의 만족도	-.168*	-.548*

*p<.05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애노인을 두 집단(노령화된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으로 나누어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체기능적 특성,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둘째, 두 집단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도 ‘제4차 국민노후보장 패널(노령화패널)’의 자료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379명)를 노령화된 장애인 집단(166명)과 노인성 장애인 집단(213명)으로 분류하여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장애노인을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 중 노인성 장애인이 노령화된 장애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에 노인성 장애인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장애유형은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집단 모두 지체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나머지 유형의 비율은 다른 분포를 보였다. 장애등급의 경우 노령화된 장애인은 4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노인성 장애인은 3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두 집단이 등급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였다. 한편 학력분포는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모두 무학과 초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비슷

한 형태를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취약계층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존재여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령화된 장애인 집단이 노인성 장애인 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적 독립여부도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비율이 더 높았다. 배우자 존재유무나 경제적 독립여부 결과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신체 및 기능적 특성을 보면 일상생활활동(ADL)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모두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관적 신체건강상태에서는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 및 기능적 장애수준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지 기간이 길수록 '적응이론'에 의해 주관적 신체건강상태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 특성에서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성 장애인의 우울감이 노령화된 장애인의 우울감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애 적응 단계 이론에 의해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노령화된 장애인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삶의 만족도 비교에서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 역시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장애 유지 기간이 긴 노령화된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장애에 적응한 기간이 길어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에서 장애인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관계수(γ)에 의하면 노인성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성 장애인의 경우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가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성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감을 낮추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 대해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장애노인의 두 집단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즉 두 집단의 특성 및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용어 통일과 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정의와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노인이 장애와 노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두 영역에서 학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노인의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약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애와 노령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모두 안고 있는 장애노인은 당연히 더 큰 관심과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오히려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양쪽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또는 서로 떠넘기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두 영역에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공기관간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노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을 공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장애인과 노인 두 영역의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노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가 고려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대상 아닌 욕구에 기초해야 한다. 노령화된 장애인 중 경증인 경우 주로 이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참여 및 자립의 욕구가 강한 반면, 와상 상태의 노인성 장애인은 간병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욕구가 강하므로 장애노인의 개별적 특성 및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노인 중 노령화 장애인이 노인성 장애인보다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에서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장애 유지 기간이 긴 만큼 장애에 대한 수용 내지 적응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하여 장애노인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와 노령이라는 어려움이 노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노인이 되기 전부터 장애가 발생하고 이후 노령기를 맞이하여 시차를 두고 오지만, 노인성 장애인은 장애와 노령을 한꺼번에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노인성 장애인의 적응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애노인의 적응을 위해 사회적 제도나 장치, 비장애인의 긍정적인 장애인관 등이 확립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장애노인 스스로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프로그램도 이러한 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 노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프로그램이나 장애노인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애노인의 인지오류 극복 프로그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애노인의 구분에 있어 장애발생시기가 62세인 경우 장애노인의 연령 기준이 60세라면 노인성 장애인이 되지만, 65세로 정한다면 노화에 따른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 노화에 따른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이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후속 연구에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1년도 '제4차 국민노후보장 패널(고령화 패널)'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표집된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장애노인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는 횡적으로 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노인의 장기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애노인의 특성은 생애 전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노인의 생애 경험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주관적 신체건강상태,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서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그 원인을 장애유지기간이 길면 적응과 수용감이 높을 것이라는 데에 두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응과, 수용감을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간우선, 조성재, 조주현(2012).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장애수용도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49-174.
- 권오균(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 7-32.
- 권혁창, 송현주, 이은영, 임 란, 박소현, 정희수(2011).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 공혜경(2010). **장애노인의 우울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은, 이종립(2013). 장애노인의 이중차별경험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역할수행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9, 257-280.
- 김동기(2013). 고령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지원방향에 대한 토론.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24.
- 김미옥(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 73-97.
- 김성희(2013). 장애노인의 실태와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고선정(2004). 장애유형별 장애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3).
- 김성희, 이송희, 노승현, 정일교(2011).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수, 김용섭(2009). 장애노인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2, 183-215.
- 박자경(2006).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모형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용진(2004) 장애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장애중장년층과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복지연구**, 25, 49-74.
- 송미영(2011). 남년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143-155.
- 송요현(2013). 손자녀 돌봄 노동 관련 연구: 손자녀 돌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제4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51-167.
- 양희택, 신원우(2011).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노령화된 장애와 노화에 따른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255-278.
- 이영미(2013). 장애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2, 35-58.
- 정요한, 김동배(2013). 은퇴노인의 경제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4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93-418.
- 이경식(2001). **로이 적응모형(The Roy adaptation model)**. 서울: 현문사.

-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7, 187-213.
- 이준우(2005). 고령화 사회에서의 장애인 복지전략. *재활복지*, 9(2), 1-28.
- 정정숙(2013). **척수장애인의 우울과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단기심리상담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재(2007).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재활 상담 기법 및 중재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2), 493-508.
- 최윤희(2009).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우울감에 관한 연구: **손자녀 돌봄 노동실태와 자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3). **장애노인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12). 고령자 통계.
- 황흥기(2014). **장애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영향 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tchley, C. R.(1991).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eck, A. T(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1(1), 5-37.
- Campbell, M, and B. Kemp(1997). Variations in secondary conditions, risk, factors, and health care needs for four groups of persons aging with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34, 119-120.
- Campbell, M. L.(1996). A Research Perspective: Next Steps on Bridging the Gap Between Aging and Disability. *Maximizing Human Potential*, Spring, 3-5.
- Putnam, M.(2007). Moving from separate to crossing aging and disability service networks. In *Aging and disability: Crossing network lines*. Edited by M. Putnam. NY: Spring Publishing Co.
- Ross, C. E(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177-187.
- Verbrugge, L. M. and I. Yang(2002).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53-267.



The Study on Correlation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Elder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Song, Kee-Young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Furthermore, it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two groups -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This study analyze the 4th KReIS(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panel data(2011) by using the way of secondary data analysis. The subjects of research are 379 elderly with disability aged 65 and over. The attributes of disabled elderly were reviewed to life circumstance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 physical & functional trai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ging with disability have higher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ife satisfaction and lower depression. Secondly, There were minus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elderl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ignificant practical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needs to be a clear definition of the two groups -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Secondly interdisciplinary research is required betwee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at of the elderly. Thirdly, the service provisions considering individual needs and trait of disabled elderly are requested. Finally, the adaption programs for disabled elderly are required.

☼ Key words : Disabled Elderly, Aging with disability, Disability with aging,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논문투고일 : 2014. 3. 31.

논문심사일 : 2014. 4. 20.

게재확정일 : 2014. 4. 25.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No. 1, 71-94.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 해 린*

【국문초록】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조사(2008) 중 2 패널 6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3,549명의 가운데 총 112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 가구 청소년의 문화예술참여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공격성 및 분노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여가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이 높을수록 빈곤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본 논문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주제어 : 문화예술 활동, 빈곤 청소년, 공격성, 청소년 패널, 다중회귀분석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상사회복지전공 박사수료

I. 문제제기¹⁾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문화권은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며, 여가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영역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었을 뿐 아니라, 문화권은 다른 사회적 권리가 먼저 실현되고 난 다음에 다루어져야 할 차후의 권리로 간주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져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성과위주와 결과 지상주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65.98점으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되었다(박민정, 2011). 이와 같이 다수의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주당 평균 15시간이나 많은 49.43시간 동안 공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은 적어 청소년의 권장 수면시간으로 알려진 9시간보다 적은 평균 7시간 30분 잠을 자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희진·진미정, 2009).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공부만 하고 놀 시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빈곤 아동 및 청소년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의미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빈곤으로 인한 차별, 소외, 박탈 등 다양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기회의 박탈에 따른 문화적 배제로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특히 빈곤층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을 주어 왔고, 서비스 또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인 구호에 한정됨으로써 문화향유권의 배제를 초래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는 악순

1)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활동이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하여, 각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여가, 여가 문화활동, 놀이,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활동, 문화활동은 문화예술활동과 동일한 뜻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환이 지속되어 왔다(최종혁·이연·유영주·안태숙, 2010).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역시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에 따라 문화 향유권도 달라지는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문화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양질의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소득층에게는 더 희소해지고 있다. 문화 복지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사회복지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의 영역에서도 문화자본의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향유권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적인 삶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빈곤층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외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나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해 내었고, 다양한 교육적 노력 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lawson·Coolbaugh, 2001).

빈곤 가정 아동의 경우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각종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문화 실조 또는 학습부진을 경험하기도 한다(이소희·유미숙, 2000; 김광혁, 2006; 이연옥·노영주, 2012, 재인용). 더구나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적자극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로부터의 받는 소외감이 충동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으로는 위축되며 자아존중감은 낮은 편이다. 또한, 빈곤 문화가 학업성적부진, 무단결석, 싸움, 비행, 가출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도덕적 규율은 낮고,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박정란·서홍란·장수한, 2011). 만약 이들이 자신이 속한 경제 계층을 하층이라고 지각한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수준도 높았다.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와 모든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권의 보장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며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에 참여는 분노와 공격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참여는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근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 효능감 증가,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조절감 등의 효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은 교육학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비행과 가출,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이 부족함에 따라 공격성과 좌절감(김성애, 2008),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정순애, 1998).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충분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 과제수행,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선택이나 도전을 하고 어려운 일을 행할 때 끈기있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런 자기 효능감은 창의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허정철·김원옥·오을임(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회성, 도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가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효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현대사회의 위기와 교육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소외감, 자아상실 등을 예술적 표현활동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성도의·김세준, 2012).

문화예술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의 경우 심신의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심미적인 만족감을 주어 보다 강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조영수, 2001). 미술의 경우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의 감정을 작업을 통해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래를 비롯한 생태체계적인 긍정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울감의 개인 내적·외적 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속한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현옥, 2010). 무용의 경우 신체의 움직임 표현을 통해 단순히 신체발달이나 지적발달을 위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유설희, 2000), 자아감각을 발달시키는데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분열된



자아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무용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 가치, 태도, 자신감 등을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인성과 태도 및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아인식, 이상에 대한 탐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Berryman, 1988; 김현숙·노해진, 2011,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의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 균형 잡힌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을 도우며, 지도성이나 협동심을 길러주고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주고(김지혜, 2009; 성도의·김세준, 2012, 재인용), 빈곤청소년이 스스로를 사회의 부담이나 의존적 대상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아실현은 물론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정익중, 2005).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의해 제공된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하지만 빈곤계층 청소년은 문화에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건실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교육 형편상 빈곤청소년에게는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좋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다양한 교육기회에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 형성이 힘들다는 것이다(노혁, 2003). 따라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장차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노혁, 2003). 이는 곧 빈곤계층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요건이 될 수 있다(노혁, 2003).

한편 해외 연구 중 스코틀랜드형 엘 시스템아 사업인 'Sistema Scotland'는 오케스트라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자신감과 함께 행복감, 사회성, 집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음악교육이 자기 효능감과 같은 맥락에 있는 자아개념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성도의·김세준, 2012). 특히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학생들의 예술참여가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시각예술교육이 아동의 자기 효능감 및 창의성의 요소 중에서 특히 독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성도의·김세준, 2012).

개인에게 있어 경제적인 부의 확대가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던 시대에는 물질적인 부에 많은 행복의 기준을 두었다(고경자, 2009). 그러나 정신적인 행복이 담보되지 않는 물질의 확대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공허함으로 정신이 황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경자, 2009). 미적 체험과 향수에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과 자존감 좀 더 나아가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재로서 문화예술교육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맛보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한다(고경자, 2009). 예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자신감 증진, 자존감 향상 및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넘어서 전신과 육체 등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변화의 향상과 삶의 질 강화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경자, 2009).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적 효과로서 교육을 통하여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다지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찾게 된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정의적 발달에 대한 변화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계하는 요인들과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경자, 2009).

2. 빈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 이상으로 건강, 정신건강, 행동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빈곤은 사회부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11).

빈곤 청소년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빈곤으로 인한 부모들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가정불화로 자아존중감이 중·상류계층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감정을 조절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부적절한 부모행동의 영향을 통해서 사회·정서적 발달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타인의 정서이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 넷째, 심한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거부감이 강해 호전적이고 부정적·공격적인 행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져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다(Tobby·Elder, 1984; 박현선, 1998, 재인용).

빈곤아동들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우울 및 충동성, 행동 문제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정서 및



행동 문제의 발생률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성경·김혜영·최현미,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년에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객관적으로 빈곤하거나 주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우울감,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다(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2008).

빈곤청소년은 빈곤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정적·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취약한 빈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학교 환경,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며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현선, 1998).

3. 빈곤이 청소년의 공격성 및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분노(angry)는 개인의 욕구가 어떠한 형태로든 방해받고 있거나 어떠한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반응으로써, 불쾌감과 함께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스스로 자아발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 당하였을 때에 분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자기주장의 방해, 간섭, 압박, 이유 없이 꾸중을 듣는 일, 불공평한 취급, 흥미 없는 충고, 무시당하는 등 개인의 자유를 구속당하였을 경우에 분노가 나타났으며, 분노의 표출 방법으로는 침묵, 무반응, 반항, 등의 거부적·부정적 태도가 많아지는 동시에 상대방을 헐담하고, 빈정대고, 헐뜯고, 야유하고 뒷담화를 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 또는 반항적 태도가 많아진다(한상철·임영식, 2004).

특히, 분노는 빈곤의 문화 및 환경의 영향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빈곤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났다. 더구나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지적 자극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로부터의 받는 소외감이 충동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으로는 위축되며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또한, 빈곤 문화가 학업성적부진, 무단결석, 싸움, 비행, 가출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도덕적 규율은 낮고,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운 경향을 보이며, 부모들의 사회적 지지를 위한 능력이나 동기부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박정란·서홍란·장수환, 2011), 자신이 속한 경제 계층을 하층이라고 지각한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수준도 높았다. 이것은 일반 사회가 보여주는 윤택한 환경과 자신의 가정이 가난하다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열등의식, 건강,

갈등 속에서 성격이 날카로워지며 불만에 차게 되어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노필순·윤혜미, 2007). 또한, 안정미·안권순(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타인에게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경험하고 지나치게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성향 중 공격성도 발견할 수 있다. 공격성은 해로움을 피하는 동기를 가진 생명체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며(송길연·장유경·이지연·정윤경, 2008), 이는 앞서 빈곤청소년의 특징으로 언급한 빈곤한 부모의 부족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낮은 자존감은 학업성취가 낮았으며, 빈곤아동은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물리적 방법을 선호하게 하는 동기 및 원인이 되며,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아이들이 공격적이고 보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좀 더 심각한 경우는 비행과 학교 폭력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김혜란·박은미·오정수·정익중·허남순·홍순혜, 2004). 또, 비공식적인 낙인(부모학력, 성적, 월평균소득 등)은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을 통해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혜민·박병선·배성우, 2011), 학교폭력의 가해청소년의 가족관련요인 역시 빈곤으로 나타났다(권현용·김현미, 2009).

4. 공격성의 심리적 요인

공격성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거나 해치려는 성향으로(Crick & Grotpeter, 1995) 개인내적 요인과 개인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홍명숙, 어주경, 2013). 먼저 개인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및 친구의 지지, 또래 영향력, 대중매체, 사회의 구조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아버지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통제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고(김정원, 2007; 홍명숙, 어주경, 2013),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하영희, 2004; 홍명숙, 어주경, 2013), 대중매체도 폭력성의 모델 효과로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진, 광금주, 1991; 홍명숙, 어주경, 2013).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요인과 기질 및 심리적 특성과 성향 등을 들 수 있는데,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기질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같은 환경이 제공된다고 할지라



고 공격성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이희조, 1994; 홍명숙, 어주경, 2013). 또한 자기애가 높으면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았다(서수균, 권석만, 2002; 홍명숙, 어주경, 2013). 이세연(2010)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064명(남자 529명, 여자 5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애를 통제하였을 때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 자존감이 낮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란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며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낮으면 분노를 억압하여 분노가 적절하지 못한 때 과격하고 폭발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서수균, 권석만, 2002; 홍명숙, 어주경, 2013). 이처럼 전통적인 사회심리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보았지만 자기확인 이론(self-verification)과 같은 최근의 이론들은 반대로 괴롭힘 가해자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Salmivalli et al, 1999). 한편, 자존감은 공격성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공격성을 낮춘다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보고되었다(홍명숙, 어주경, 2013).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격성의 수준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존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남자들이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으로써 여자들이 주로 보이는 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보는 것을 간과한 경향이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박영신, 2005; 한영경, 2008; 현지은, 2012; 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 홍명숙, 어주경, 2013). 괴롭힘의 발생율과 관련하여서도 일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왔다(Bosworth, Espelage, & Simon, 1999 ; 오인수, 2008). 하지만 남학생들은 직접적인 괴롭힘(direct bullying)에 더 관련되어있고 여학생들은 간접적(indirect bullying)인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알려졌다(Crick & Grotpeter, 1995 ; 오인수, 2008).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괴롭힘 유형의 차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이은주, 2001; 오인수, 2008).

또한 공격성과 정서조절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력은 학생이 정서를 경험한 직후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다(이지선, 유안진, 1999; 오인수, 2008). 자기조절(self-control)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수록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Gottfreson &Hirschi, 1990; 오인수, 2008). 이러한 상관성은 추가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는데 Eysenberg와 동료들(1994)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날수록 친 사회적(pro-social) 행동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Arsenio와 Lemerise(2000)는 정서조절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공격적 행동이나 괴롭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오인수, 2008).

마지막으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theory)에 따르면 외적 자극에 의해 긴장과 불안의 정도가 증가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았다(오인수, 2008). 이를 뒷받침하여 김성경(2003)은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부적응 이외에 비행등의 행동적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오인수, 2008).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공격성을 감소시키는가?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 중2패널의 6년차 자료로 이 중 분노와 공격성을 표출하는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 자료 중 다른 패널의 경우, 대학생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로 이를 제외한 패널 중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출한 변수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환하여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 중 빈곤 관련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빈곤층은 2008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65,848원)이하로 규정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3,549명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활용된 대상은 총 112명이었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분노)

청소년이 Buss와 Perry(1992)가 제작한 것을 정동화(1995)가 번역한 것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격성 관련 그 중 6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공격성 척도는 5개 하위영역(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분노)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 시점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79, 0.76, 0.77, 0.80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여가활동참여에 있어 음악, 미술, 무용, 춤추기, 공예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의 시행을 문화예술활동으로 정의하며 한국청소년패널조사(2008)의 설문 중 여가부분의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평일 및 휴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 활동을 묻는 총 53개의 문항 중 영화 관람(극장), 연극(무용)관람, 미술전시회 관람, 음악회 관람(대중음악), 음악회 관람(클래식, 뮤지컬 등), 노래 부르기(노래방), 악기 연주하기, 춤추기, 사진 찍기, 만들기(공예, 꽃꽂이 등)의 10개 문항에 답한 경우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를 의미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인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거주지를 설정하였고, 공격성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 자기신

퇴감, 정서적 조절감, 불안·우울·자살충동, 스트레스(긴장)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자아존중감

청소년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중 6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에서 ‘매우 그렇다 -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자아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구성되는 2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Owens, 1994; 전해숙, 2008; 홍영수, 2004). 즉,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이며 때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Harter & Buddin, 1987; 홍영수, 2004 재인용).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2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즉,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 3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3문항으로 각 잠재요인을 설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자아존중감이라는 잠재요인을 구성하는 위계적 2차 요인모형을 설정하여 투입하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3문항은 역점 처리하여 총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41로 나타났다.

(2) 자기신뢰감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신뢰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신뢰, 스스로의 문제해결력 정도, 독립적인 삶의 태도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를 신뢰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4이었다.

(3) 정서적 조절감

정서적 조절감을 재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식 5점 척도이다. 문항들은 모두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괴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한다.”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2이었다.

(4)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우울은 DSM-IV-TR(APA, 2000)에서 제시하는 주요 우울증 진단 기준에 포함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이다. 각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 매우 그렇다 -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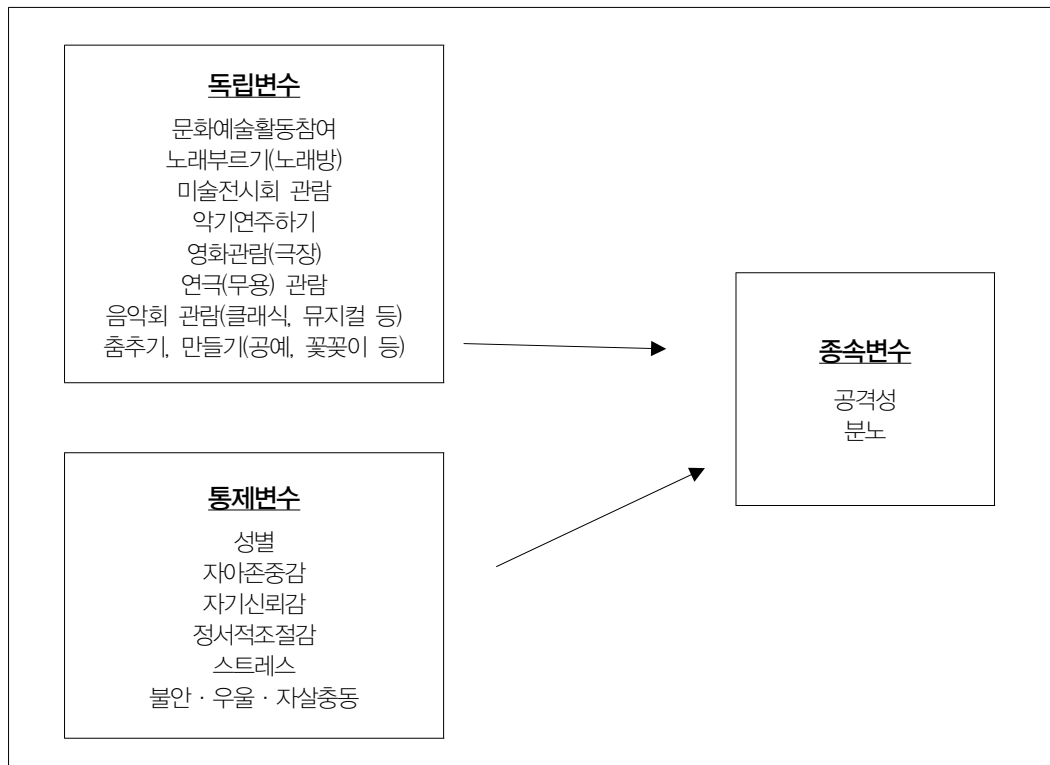
(5) 스트레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척도는 5개 하위영역(학업관련 스트레스, 친구 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스트레스, 외모관련 스트레스, 물질관련 스트레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이다. 합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0이었다.

4. 분석틀 및 분석방법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분노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56명(48.3%), 여자 청소년이 60명(51.7%)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가 38명(33.3%), 중소도시가 61명(53.5%),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15명(13.2%)으로 나타났다.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청소년은 42명(67.7%)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15명(24.2%)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변 수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자	56	48.3
	여자	60	51.7
지 역	대도시	38	33.3
	중소도시	61	53.5
	농어촌	15	13.2
친부모와 동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다.	42	67.7
	아버지하고만 함께 산다.	1	1.6
	어머니하고만 함께 산다.	4	6.5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다.	15	24.2

* 결측치는 사례수에서 제외함

2. 주요변수의 특성

1) 독립변수 특성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특성은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빈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 빈도는 모든 순위에서 1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빈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순위에 상관없이 영화 관람이 13명, 노래부르기가 4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각 문항을 더하여 순위에 상관없이 1번 이상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는 1회 이상 참여로 구분하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로 구분한 결과, 1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은 전체 대상자 중 23명이 여가 구분에 상관없이 1번 이상 여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수 특성

(단위 : 명, %)

변 수		빈도(명)	변 수		빈도(명)	변 수		빈도(명)
평일 1순위	영화관람	1	평일 3순위	영화관람	2	주말 2순위	영화관람	4
	노래부르기	1		노래부르기	4		춤추기	1
평일 2순위	영화관람	2		춤추기	1	주말 3순위	사진찍기	1
	악기연주하기	2	영화관람	1	영화관람		4	
	춤추기	1	주말 1순위	영화관람	1		미술전시회관람	1
						노래부르기	3	
						악기연주하기	1	
			변 수			빈도(명)		비율(%)
문화예술활동 참여			전혀 참가하지 않음			93		80.2
			1회 이상 참여			23		19.8

2) 통제 및 종속변수 특성

조사대상자의 종속변수인 분노 및 공격성 관련 특성, 통제변수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정서적 조절감, 스트레스, 불안·우울·자살충동으로 이에 대한 특성은 아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3이하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변수의 특성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제변수	자아존중감	3.44	.625	-.006	-.154
	자기신뢰감	3.64	.697	.041	-.012
	정서적 조절감	3.44	.762	.149	.182
	스트레스	2.43	.625	-.456	.072
	불안·우울·자살충동	2.62	.733	.163	-.369
종속변수	공격성 및 분노	2.54	.745	.383	.467



3.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분노 및 공격성 변수와 통제변수인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정서적 조절감, 스트레스, 불안·우울·자살충동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인 문화여가활동은 자아존중감($r=.244$, $p<.01$), 자기신뢰감($r=.25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여가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빈곤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분노 및 공격성은 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r=.350$, $p<.00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아질수록 종속변수인 분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노	성별	문화 여가활동	스트 레스	자아 존중감	자기 신뢰감	정서 조절감	불안
분노	1							
성별	-.085	1						
문화여가활동	-.063	-.039	1					
스트레스	.164	.165	-.048	1				
자아존중감	-.169	.080	.244**	-.344***	1			
자기신뢰감	-.061	-.065	.255**	-.178	.530***	1		
정서조절감	.085	.067	.006	-.131	.191*	.368***	1	
불안	.350***	.109	-.159	.455***	-.524***	-.314**	-.157	1

* $p<.05$, ** $p<.01$, *** $p<.001$

4. 연구모형 검증

빈곤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이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가운데 범주형 변수인 성별은 더미화하여 투입하였다.

문화여가활동을 독립변수로 분노 및 공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분노 및 공격성의 변량(Variance)을 16.4%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문화여가활동이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통제변수인 불안(Beta=.386 : $p < .01$)은 분노 및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을수록 빈곤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S.E	Beta	t
통제변수	성별	-.223	.137	-.151	-1.632
	불안	.392	.113	.386	3.470**
	스트레스	.054	.121	.046	.448
	자아존중감	.053	.144	.044	.366
	자기신뢰감	-.023	.120	-.021	-.187
	정서조절	.157	.094	.161	1.675
독립변수	문화여가활동	-.022	.172	-.012	-.126

Constant = 1.474
F=3.016**
R² = .164
Adj R² = .109

** $p < .01$

V. 결 론

본 연구는 빈곤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공격성과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과 공격성과 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과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청소년의 문화예술참여와 공격성 및 분노를 영향요인으로 설정, 공격성과 분노를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정서적조절감, 스트레스, 불안·우울·자살충동을 통제하여 빈곤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공격성과 분노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세우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빈곤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공격성 및 분노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여가활동 참여는 자아 존중감과 자기신뢰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이 높을수록 빈곤청소년의 분노 및 공격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공격성 및 분노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지지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높을수록 공격성 및 분노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연구결과로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1개년도 자료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회성의 횡단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따른 분노 및 공격성을 논한다는 것은 종단자료에 비해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결과와 해석을 위해서는 Amos나 위계 선형모형 등을 활용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이후 패널조사의 종단자료를 통해서 빈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참여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자(2009).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의 정서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현용, 김현미(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동서정신과학**, 12(1), 1-12.
-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2011). **아동복지론**. 양서원.
- 김성애(2008). 집단 이야기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임상음악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훈(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정익중(2009).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에 나타난 통합관점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회**, 30, 7-40.
- 김현숙, 노해진(2011). 중학교 무용수업 참여자들의 무용정서가 수업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 24, 1-17.
- 김혜란, 박은미, 오정수, 정익중, 허남순, 홍순혜(2004). 한국복지재단, 한국아동복지학회 공동 연구프로젝트: 가족형태에 따른 빈곤아동의 실태에 대한 연구. **동광**, 100, 3-44.
- 김희진, 진미정(2009).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필순, 윤혜미(2007). 중학생의 빈곤감, 가족기능과 사회적지지 및 문제행동.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12, 23-46.
- 노혁(200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민정(2011).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란, 서홍란, 장수한(2011). **청소년복지론**. 파주: 양서원.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1, 23-30.
- 변시영(2009). 정서경험과 정서표현성이 인터넷 중독·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설연옥(2007). 도시 저소득계층의 문화복지 증진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도의, 김세준(2012).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예술경영연구**, 23, 91-114.
-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2008).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규리, 정진영(2011). 청소년의 지각된 여가인지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 20(3), 455-467.
- 안정미, 안권순(2012). 청소년의 분노정서경험관련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9(3), 267-292.
- 오인수(2008). 초등학생의 학교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요인. **초등 교육연구**, 21(3), 91~110.
- 유설희(2000). **대학 무용학습의 환경적 요인이 수업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상, 임희진, 박창남, 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세연, 유미숙(2010). 청소년의 자기에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1-128.
- 이연옥, 노영주(2012).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3(1), 73-98.
- 이영숙(2012). **오카리나 연주가 중년여성 우울증 해소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불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옥(2010). **학교미술치료가 청소년기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수(2001). 음악이 개인의 심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 3(1), 31-48.
- 정순애(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아이]의 성과와 가능성. **사회과학연구**, 11, 99-119.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9.
- 최종혁, 이 연, 유영주, 안태숙(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한상철, 임영식(2004).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허정철, 김원옥, 오을임(2006). 수련활동,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통계연구소 논문지**, 8(1), 1-27.

홍명숙, 어주경(2013).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애, 공감능력,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6), 3,911-3,928.

Clawson, Coolbaugh(2001). The Youth ARTS Development Project.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1-MAY, 1-16.

Shorris, E(2000). *Riches for the poor: The Clemente course in the humaniti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Effect of Art and Culture activities of youth from poor family on their Aggressiveness

Jeong, Hae-Rynn

【Abstract】

It is important that Youth participate on age-appropriate art and culture activities during their developmen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art and culture activities of youth from poor family on their aggressiveness using the data from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 by the Korean Youth Panel study(KYPS) 2008. Out of 3,549 participants, a sample of 112 youth was selected. Analysis method 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s that art and culture activities do not influence on Aggressiveness of youth from poor family. However, art and culture activities positively correlate with self-esteem and self-trust of youth from poor families. And Level of anxiety is higher, the level of anger and aggressiveness is higher. Based on result of this study, several limitations were discussed for future research.

☼ Key words : art and culture activities, youth from poor family, aggressiveness, KYP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논문투고일 : 2014. 3. 31.

논문심사일 : 2014. 4. 21.

게재확정일 : 2014. 4. 25.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5, No. 1. 95-110.

지체장애인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텔레프레즌스 로봇 시스템 제안

김 창 결* · 강 정 배** · 진 미 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체제약으로 인하여 취업 및 직업유지가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의 사무직 취업 및 직업유지기간을 늘리고자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원격 업무보조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텔레프레즌스 로봇은 원격지에 있는 대상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원격조정 및 이동성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지체장애인의 이동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환경의 정보와 업무교육 이수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장애인이 원격지에서 로봇을 조작하여 대신 출근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유지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제어 : 원격제어, 지체장애인, 텔레프레즌스 로봇, 직업재활, 스마트워크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서행동장애아교육 박사과정

I. 서론

1. 문제제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직업 활동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아실현의 도구이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 질 수 있다(김창걸, 류근재, 송병섭, 2014). 이러한 직업 활동에 있어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과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약 60%가 오랜 시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로 있는 이유를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취업을 한 장애인이라도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는 비율이 약 30%를 차지할 만큼 장애인들에게 있어 신체적 제약과 건강 상태는 구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양수정, 최종철, 김호진, 고제훈, 2012). 또한 장애인은 직업을 구하더라도 그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의 내용과 개인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적성의 부합, 감각장애 이고, 지하철이나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직업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동의 불편이 직업유지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식, 김명식, 2013).

즉,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장애인 보다 직업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이석원, 허수정, 2012). 이러한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보행이나 이동의 어려움, 컴퓨터와 같은 물체 또는 대상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수반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서동혁 외, 2009; 이석원, 허수정, 2012; 장운현, 홍원기, 김창걸, 송병섭, 2012; 정세현, 2013). 이처럼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이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장애인의 직업 생태계와 무관하지 않다(이채식, 김명식, 2013). 취업 중인 장애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 장애인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31.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19.8%이며,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단순노무종사자가 4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14.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0.8%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장애인의



70% 가량이 지적 능력보다는 육체적 노동을 위주의 업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양수정 외, 2012). 즉, 육체적 노동 위주의 직업 생태계가 지체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유지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 생태계 형성의 원인이 사무직 일자리의 부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2013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업의 구인 형태를 살펴보면,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구인 수는 전체 구인 수 20,080명 중 6,10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구인 수는 전체 구직자 수 10,420명 중 59%를 차지 할 만큼 사무직 비중이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기능직 이외에도 사무직 종사자를 충분히 채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하지만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전체 사무직 구직자 2,037명 중 832명으로, 그 비율이 40.8%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에서 사무직 직원 6,101명 모집하는데 2,037명 지원하여 경쟁률이 0.33인 상황에서 전체 지원자 2,037명 중 832명 만 취업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이 육체노동 중심의 일자리 뿐 아니라 정신노동 형태인 사무직 일자리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능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노동은 일반인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신체적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지적 능력을 주로 필요로 하는 사무직에서는 신체적 능력과 업무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 하였을 때 충분히 일반인과 같은 업무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동의 문제점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컴퓨터 접근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에 제약 없이, 직장 동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작업 및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II. 본 론

2012년 장애인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 지체장애인의 수는 130만 명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러한 지체장애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제약과 본인의 기대감이 상충되어 생활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향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력 수준에 걸맞은 직업을 연계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윤상은, 이달엽; 2011). 지체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고학력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고학력 장애인의 경제활동률은 71%로 높지만 취업률은 10%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고학력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형태 보다는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을 선호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는 업무 내용이 능력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발전에 도움 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현상이다(윤상은, 이달엽; 2011; 이채식, 김명식, 2013; 양수정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여 지체장애인들의 신체적 제약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체장애인들의 사무직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1.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동료와 협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하며,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스마트워크와 비슷한 개념 혹은 하위개념으로 사용된다. 스마트워크는 업무 공간에 따라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근무와 자택 근처의 원격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근무로 구분된다(정동일 외, 2013; 최웅철 외, 2011). 2013년 정동일 등의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스마트워크 모델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로 인한 직장애 소속감이 결여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의 특성과 장애를 고려한 보조기기의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오길승, 신현욱, 신숙경(2009)도 ‘중



증장애인의 원격근무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격근무는 장애인근로자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며, 매우 적합한 근무형태임을 나타냈고, 이러한 원격근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6년 김성희, 김효성, 이요행, 강배근의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연구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형태이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근무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한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택근무가 상지기능에 제한이 없는 일부 장애유형에게 한정되어 있는 형태를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른 장애 유형으로 확대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전 연구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텔레프레즌스 로봇 시스템은 재택근무의 문제점인 소속감의 부재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으로 지체장애인의 스마트워크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상지기능에 제한으로 인하여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컴퓨터 대체접근 장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텔레프레즌스 로봇 시스템의 제어와 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제어를 함께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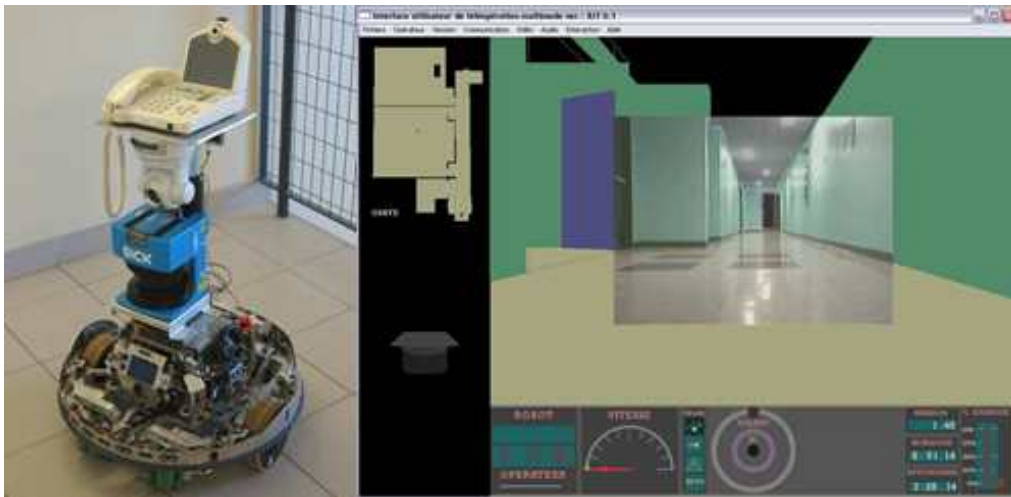
2. 텔레프레즌스 로봇 현황

텔레프레즌스 로봇(Telepresence Robot)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환경에서 로봇을 통해 현장을 실재하는 것처럼 느끼며 대화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진용규, 2014). 텔레프레즌스 로봇은 기존의 이동성이 없는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에 비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에 높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텔레프레즌스 로봇은 상호작용의 이점으로 인하여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였을 때 집안에 누워서 학교 수업을 듣고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발표를 할 수 있고, 노인들의 경우 원거리의 자녀와 친구를 공간에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어 외로움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설계함에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김창걸, 송병섭, 2012).

1) Telepresence Robot

Michaud et al.(2007) 등은 노인들을 위한 원격지원 로봇 혹은 서비스 로봇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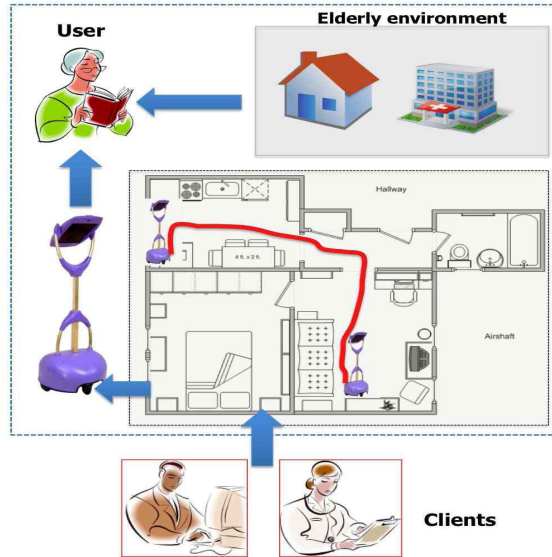
석하여 Video user interface에 관한 제언 및 새로운 로봇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제작된 로봇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원격제어를 위해 영상을 제공하며, 가정에서 장애물과 좁은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둥근 모양의 로봇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원격 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원격지사용자가 보는 화면 중앙에 카메라로 들어오는 화면을 배치하여 로봇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계 하였다.



[그림 1] Telepresence Robot

2) ExCITE

Cesta et al.(2011) 등은 일반 가정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킨 원격 제어 로봇인 ExCITE을 소개하였다. 로봇 ExCITE은 [그림 2]에서와 같이 플랫폼(The Giraff platform)에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구현함으로써 상호연락 환경 구축, 거리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 대상자의 우울증 감소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로봇(ExCITE)의 플랫폼(The Giraff platform)제어는 무선 랜(wireless LAN)환경에서의 컴퓨터/노트북에서 Graff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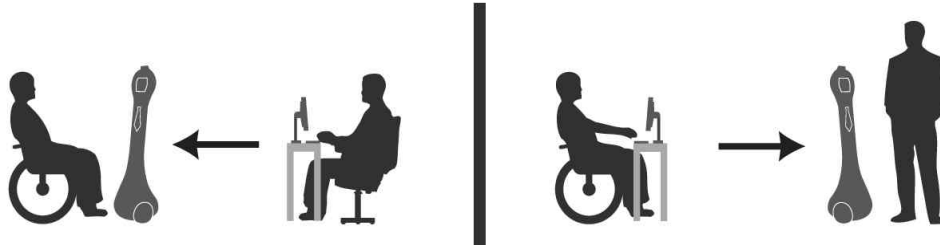


[그림 2] ExCITE의 개념도(Cesta, 2011)

3) VGo robot

Tsui et al.(2011)등은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의 건강 문제로 일으킬 수 있는 슬픔이나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 등이 원격지로 로봇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이다. 그 로봇(VGo robot)은 IR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한다. 또한 Speaker와 6 inch screen을 사용하여 원격지에서 로봇을 조정하는 사람(remote person)의 말과 영상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webcam과 microphone을 이용하여 대상자(user)의 영상과 음성을 지원실에 보내준다. 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이와 대상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개발한 로봇 조정을 위해 원격지에서는 3가지 모드(Drive, Follow Person, Go to Room)를 사용하여 로봇에게 주행 신호를 보내고, webcam의 화면 각도 조절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개념도 [그림 3]에서와 같이 가족이나 친구 등이 원격지에서 로봇을 조작하여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자가 로봇을 조작하여 친구나 가족을 만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이런 의사소통을 위해 VGo robot은 webcam, 6 inch screen, microphone, speaker을 부착하였다.



[그림 3] VGo robot의 시스템 개념도(Tsui, 2011)

4) TRiCmini

Lu et al.(2011) 등은 노약자를 위한 원격지원 로봇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원격지원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격지에서 소형 로봇을 조작가능하며, 대상자와 대화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원격지원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신모듈과 이동 모듈, LED 감정표현 모듈, 음성/비디오 모듈과 파워모듈을 탑재한 TRiCmini을 개발 하였다. TRiCmini는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이동, 감정의 표현, 얼굴 인식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가족 구성원과 노인 사이 거리의 장애를 없애 주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의사들의 도움을 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TriCmini는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공헌하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로봇이다.

3. 지체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접근기기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사무직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하여 회사에 출근하고 근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직업유지가 어려운 지체장애들은 컴퓨터 접근 또한 특별한 장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기기 또한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컴퓨터 접근기기를 직업유지기간이 짧은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기를 매번 설치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지만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하여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 접근장치와 개인 정보통신기기 접근에 사용되는 장치가 중복으로 필요하지

않음으로 이를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대체접근 장치를 동일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컴퓨터 대체접근 장치 사용에 숙달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업무의 업무효율을 증가 시킬 것이다.

1) 대체 키보드

① King Keyboard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보드 입력장치이며, 약시장애, 손 떨림 장애 혹은 마우스스틱 사용자 들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제품이다. 큰 사이즈의 키보드로 편리하게 타이핑하여 정보를 입력 가능하다. 마우스 기능을 같이하며, 마우스의 좌우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등 가능하다.

② One Handed Keyboard

한 손 사용자를 위한 키보드이다. 한 손으로 키보드 작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 졌다. 버튼 조합형으로 키를 입력하며,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키를 동시에 눌러 글자를 만들어 입력하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작업에 피로감이 덜하다.

③ Kinesis Evolution Adjustable Keyboard

키보드가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표면을 얼마든지 조정 가능 하여, 근력이 약한 사람에 유용하며 중립적인 자세의 손목에 촉감을 높혀 준다. 손목의 압력을 줄이며, 각 부분의 바깥쪽으로 각도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림 4] King Keyboard, One Handed Keyboard, Kinesis Evolution Adjustable Keyboard
(www.ablemall.co.kr , www.ergocanada.com 2014.4.4.)

2) 대체 마우스

① Roller Joystick II

트랙볼 형 마우스이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일반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마우스 이동을 대신하는 조이스틱으로, 클릭 버튼을 대신하는 세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Foot Mouse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발로 사용하는 마우스이다. 한쪽 발은 클릭, 한쪽 발은 커서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③ Quick Glance II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카메라를 눈으로 주시함으로써 작동되는 장치이다. 지체장애 등으로 일반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커서를 위치시키고 움직이고 싶은 곳을 쳐다보는 것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눈을 깜빡임으로서 클릭이 되며 별도의 스위치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 5] Roller Joystick II, Foot Mouse, Quick Glance II
(www.atall.or.kr/atracware, KATSA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2014.4.4.)

4.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원격 출근 시스템 제안

본 연구에 제안 하는 시스템의 개념은 그림 6에서와 같이 가정의 지체장애인이 컴



퓨터를 활용하여 사무실의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제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장의 업무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컴퓨터 접근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의 가정에 컴퓨터 접근장치를 설치하여 텔레프레즌스 로봇의 제어 및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가 원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소통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로봇에 TTS 시스템이나 가정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림 6]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원격 출근 시스템 개념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텔레프레즌스 로봇이 기본적으로 탑재 하고 있어야할 기능은 양방향 영상/음성 전송시스템 및 이를 위한 카메라, 모니터, 마이크, 스피커를 비롯하여 무선 네트워크 접속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양방향 비디오 전송시스템을 위한 카메라의 사양은 원격지에서 로봇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화각이 상·하/좌·우 모두 160° 이상인 카메라 1대 또는 로봇의 바퀴부분 주변과 정면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메라 2대이다. 로봇의 외형 및 구동 시스템은 좁은 사무실에서 이동이 자유롭기 위하여 로봇의 좌우 폭 과 회전 반경이 35cm 이하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이동 시 흔들림을 줄이고, 경사로를 올라 갈 경우,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이때 로봇의 높이는 타인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최대 170cm에서 최소 80cm 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장소이동을 위하여 배터리 체크기능과 무선 인터넷 및 이동통신사의 10M/bps 이상의 정보통신 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하여 통신이 끊어 졌을 때 이를 인지하는 프로그램과 낙하지점을 인식하여 정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

Ⅲ. 논의

본 논문에서는 사무직 업무를 수행함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불편, 컴퓨터 접근에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 직장 동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현재 급속도로 상용화 되고 있는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원격 출근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동의 제약 및 컴퓨터 접근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이 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컴퓨터 접근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충분히 숙달한 후 이를 통하여 원격지의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제어하고 업무와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고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원격 출근 시스템은 지체장애인이 힘들며 매번 출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활동보조인이나 개호자를 통한 일상생활의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업 훈련이나 근무지에 별도의 컴퓨터 접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킬 것이다. 또한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하여 직장의 동료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발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로봇음성 출력 시스템을 통한 의사소통에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은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제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직업교육을 받았더라도 장애 또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직업현장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적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며, 고학력 지체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원격지 모바일 장비만 있으면 어떤 공간에서든지 운영 가능하므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장애인 채용인원 확보에 긍정적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직업 선택 폭 확대 등 사회진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장애로 인한 근무환경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등의 방안이 시도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근무 제약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근무환경 제공은 장애인의 직업활동 범위를 넓혀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근무의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워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4가지의 정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 첫째,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근무를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인정하고,



둘째, 장애인의 텔레프레즌스 로봇을 활용한 공공기관 행정업무 매뉴얼 개발 지원, 셋째, 장애인 고용공단 등과 연계한 정부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취업 시 로봇 및 보조기구 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성희, 김효성, 이요행, 강배근(2006).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용역연구 2006-05). 경기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김창걸, 류근재, 송병섭(2014).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 활용을 위한 무인 추적 시스템 개발. **한국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8(1), 27-32, 한국재활복지공학회.
- 김창걸, 송병섭(2012). 로봇 원격지원 시스템 활용 방안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4), 95-110.
- 보건복지부(2013). 장애인 등록 현황(2012.12월말). 보건복지부.
- 서동혁, 전민호, 오영준, 류광선, 김규익, 이종성(2009). 보행장애인 실외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보조공학저널**, 3(1), 89-106.
- 양수정, 최종철, 김호진, 고제훈(2012).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여희주, 성문현(2011). 원격제어 이동로봇의 장애물 회피를 위한 퍼지 제어. **전자공학회 논문지**, 48(1), 47-54.
- 오길승, 신현욱, 신숙경(2009). 중증장애인의 원격근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8(2), 91-120.
- 윤상은, 이달엽(2011). 지체장애인의 고학력화가 직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4), 47-69,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 이석원, 허수정(2012). 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고용서비스가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2(1), 113-136.
- 이채직, 김명식(2013).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제 특성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3(1), 327-35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장운현, 홍원기, 김창걸, 송병섭(2014).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컴퓨터 대체접근 마우스 개발. **한국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8(1), 47-55, 한국재활복지공학회.
- 전동일, 신현욱, 신숙경, 김성진, 최미선, 장상현(2013).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정책 13-12).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정세현(2013). 장애인 직무적응에 대한 재활보조공학 이용 효과 연구. **한국재활복지공학회**, 7(1), 59-66.
- 진용구(2014). **3D 실린더 모델기반 모리자세추정을 이용한 텔레프레즌스 화상회의 시스템의 구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웅철, 유대훈, 이석민, 김정훈, 이종화, 안혜성(2011).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한 정보보호 수립 기준 연구**(KISA-WP-2011-0013).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4).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한국장애인개발원.
- Cesta A., Coradeschi S., Cortellessa G., Gonzalez J., Tiberio L., & Rump S. V.(2011). Enabling Social Interaction Through Embodiment in ExCITE, *in Proc. of Human-Robot Interaction Workshop on Social Robotic Telepresence*.
- Lu J. M., Lu C. H., Chen Y. W., Wang J. A. & Hsu Y. L.(2011). TRiCmini - A Telepresence Robot towards Enrich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1st Asia Pacific eCare and TeleCare Congress*.
- Michaud F., Boissy P., Labonte D., Corriveau H., Grant A., Lauria M., Cloutier R., Roux M. A., Iannuzzi D. & Royer M. P.(2007). A Telepresence robot for home care assistance. in *AAAI Spring Symposium on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for Socially Assistive Robotics*.
- Tsui K. M., Norton A., Brooks D., & Yanco. H. A.(2011). Designing Telepresence Robot Systems for Use by People with Special Need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Quality of Life Technologies 2011: Intelligent Systems for Better Living*, held in conjunction with RESNA 2011 as part of FICCDAT, Toronto, Canada.

A Proposal of a Telepresence Robot System for the Vitalization of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for Smartwork

Kim, Chang-Geol

Kang, Jung-Bae

Jin, Mi-Young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telepresence robot-based remote job assistance system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have difficulty in getting and maintaining jobs because of physical restrictions, in order to promote their employment and prolong their period of job maintenance. A telepresence robot enables communication between a person at a remote place and the user, and also can be utilized for remote control and mobile work for the convenience of the user. Such merits are helpful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o achieve mobility,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obtain information about rapidly changing work environment and receive job education. Especially, by enabli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e virtually present at their work places or do simple works through the remote controlling of the robot, the proposed system is expected to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not only to maintain jobs but also to continue economic activities as members of society.

☼ Key words : Remote control,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elepresence robot,
Vocational rehabilitation, Smartwork

논문투고일 : 2014. 3. 31.

논문심사일 : 2014. 4. 24.

게재확정일 : 2014. 4. 25.



원고투고요령

1. 원고투고요령

「장애인복지 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관련 주제에 대한 25페이지 이내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논문 투고 시 투고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2.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3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제출된 논문은 「장애인복지 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제출처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학술지 담당자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e-mail: tuwollip@koddi.or.kr / 02-3433-0669

〈편집위원〉

나영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숙경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균 (사회복지연구평가원 원장)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기획·편집〉

박주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의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5권 제1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발행일 : 2014년 4월 30일
발행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
발행인 : 변용찬
대표전화 : 02-3433-0600
팩스 : 02-416-9567
홈페이지 : www.koddi.or.kr
인쇄처 : 행복한나무 (02-324-7335)
